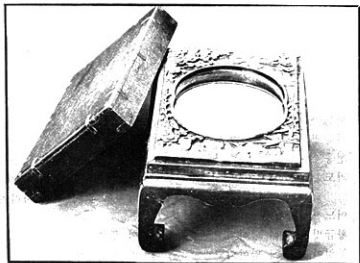


禮山文化院報



自曝遺品 梅竹視

烏山縣·任存城·今勿縣



유 태 성 . 작

예지의 단지 하나

어느 날 갑자기
 황금빛 햇살이 지나고
 천둥 소리 폭풍 소리 지나고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황금빛 새들이 날아가고
 꽃잎이 바람에 날아가고

그리곤
 화살이 날오고
 총알이 날오고
 포탄이 날오고

신음 소리 아우성이 지난 후
 울음 소리 환희 소리 범벅이 되어
 그림자도 없이 모두 사라지고

이끼 푸른
 千年 오솔길에
 뭇발길에 채이다
 찌그러진 예지의

작은 단지 하나
 이그러진 입으로
 千年 푸른 하늘을 마시고 있다.

(故 金商植 詩集에서)

王道政治哲學

王道政治哲學: 儒敎의 治世觀은 본래 德治를 기본으로 하는 王道政治의 구현이다.

따라서 이를 감당할 治者는 반드시 먼저 자기 수양인 修己로부터 시작하여 남에게 그 본을 보이는 것으로 감화시켜 다스려야 된다고 한다. 이것이 소위 修己治人의 이상적 政治哲學이다. 그러니 修己가 되지 않은 자는 治人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이에 儒敎의 학문 내용은 자연히 修己治人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역점을 두게 되고 그 當爲性을 宇宙論的인 입장에서 설명할 필요성 때문에 性理學이라는 고도의 政治哲學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性理學을 宇宙萬物의 生成原理와 運行秩序를 理氣의 互相作用으로 파악하여 그 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이하려는 학문이다. 따라서 人性和 天理는 別個의 存在인 수가 없으므로 人性을 닦는 길이 곧 天理에 精通하는 첩경이라는 論理 아래 天理에 顧應하게 하는 治人 즉 政治 그 자체의 根源을 修己 즉 자기 人性을 닦는데 두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性理學 이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治人보다는 修己쪽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시작하여 性理學 理念을 尊信躬踐하던 士林을 中心으로 藏身修學하고 率先垂範하는 修己的 傾向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治人을 爲하여 發身의 도구로 삼던 科擧 공부는 단지 수단에 불과할 뿐 목적이 아니라는 自覺에 의해 점차 이를 소홀히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으니 성급하게 性理學의 이상정치를 具現해 보려다 실패한 靜庵 趙光祖(1482~1519) 일파의 己卯名賢들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學行으로 천거하여 人才를 등용하는 賢良科의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일시 관철시켰던 것이 그런 정황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과거로 입신하여 大權을 장악하고 있던 보수세력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일시 좌절되는 듯하지만 性理學을 國是로 내걸고 있는 朝鮮王祖에서 그 理念을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人物傳에서 拔萃)

故鄉을 생각 노래하다

自庵 金 絿 先生 (1488~1533)

風流와 道家風

先生の 生涯: 金絿先生の 이름은 絿요. 本貫은 光州金氏이며 字는 大柔요. 自庵은 그 號이다. 先生은 成宗 19年(1488年) 戊申 9月 28日 서울東部燕喜坊에서 태어났으며 中宗 29年 甲午 職帖을 選授 받던 해 12月 16日 享年 47歲로서 禮山郡 西面王子池別莊에서 세상을 떠났다. 葬禮는 新岩面 宗敬里에 安葬되었다. 李弘植編 國史大事典에 卒年이 1533年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錯誤일 것이다.

先生の 先系를 보면 曾祖되시는 禮蒙은 禮曹判書로서 贈諡가 文敬公이며 祖父되시는분은 性源이며 成均館司藝에다가 贈吏曹 參判이며 父親은 季文이며 大興 縣監이요. 贈承政院左承旨요. 母親은 丹城縣監인 全義李氏 李謙仁의 따님이었다. 自庵先生은 어려서부터 天質이 卓然하여 五, 六歲때부터 文才가 있어서 成人의 氣風이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六歲에 지었다는 石榴詩를 보면 다음과 같다.

愛實不愛身(보석만 사랑하고 몸을 사랑하지 않는)

堪笑賈胡愚(賈胡의 어리석음이 우습기도 하다.)

如何不自愛(어찌하여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剖身藏明珠(몸을베어 그속에 明珠를 감추는다.)

그리고 8歲때 지었다는 烏鵲橋의 詩를보면 다음과 같다.

秋天河漢更 迢迢(가을하늘 銀河水는 한껏 높은데)

烏鵲何能 戾彼遙(烏鵲이 어찌 능히 거기까지 미치랴)

誰播人間 傳好事(누라서이같은 사연을 人間에게 전파 하였나)

碧空神會 不須橋(신령한 건우적녀가 虛空에서 만나는데 다리가 필요할까)

이와같이 6살 8살때에 이렇게 詩를 지었으니 그 文才가 뛰어났음을 알수있다. 16歲때 長樂宮記를 지어서 漢城鄉試에 壯元하였고 20歲되던해 9월 7일에 司馬試에 응시하여 生員進士 兩科에 壯元였는데 試驗官이 生員試卷을 놀히 평가하여 文章은 韓退之 같고 글씨는 王羲之 같다.(退之作之羲之書之)라고 했으니 先生の 生員試의 글이 참으로 훌륭했다는 것을 알수있다. 또 26歲 되던해 3월에 文科에 응시하여 韓忠榜에 別試科製에 及第하여 4月 2日 承文院副正字로 처음 出仕 하기 시작하여 淸職을 두루 역임했다.

지금 自庵先生이 官界에 出仕하여 두루 역임한 年譜를 꾸며보면 다음과 같다.

- 27세 7월 8일 : 行弘文館著作
8월 21일 : 守弘文館博士
- 28세 2월 16일 : 守弘文館副修撰
10월 4일 : 守弘文館修撰加兼 承文校檢
11월 14일 : 守吏曹佐郎
- 29세 7월 17일 : 司果兼承文院校檢, 守成均館典籍選知製教
9월 3일 : 守弘文館副校理兼 春秋館記注官 承文院教理
- 30세 2월 25일 : 守弘文館修撰兼 承文院校檢에 降賞되다.
6월 28일 : 降賞된 것을 還授함.
7월 8일 : 弘文館副校理
10월 19일 : 司諫院獻納
- 31세 1월 5일 : 守工曹正郎
1월 17일 : 守禮曹正郎
1월 19일 : 守弘文館校理
5월 26일 : 守吏曹正郎
9월 3일 : 守弘文館應教兼春秋館編修館 藝文館應教 承文院校勘
9월 : 弘文館典翰兼 承文參校
9월 25일 : 守司諫院司諫兼 成均可成
11월 17일 : 守掌樂院正知製教兼 成均可成 承文參校
- 32세 2월 5일 : 守弘文館直提學兼 編修官藝文館應教 成均可成 承文參校
(己卯) 3월 13일 : 承政院同副承旨兼 春秋館修撰官
6월 23일 : 右承旨 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 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위의 官職은 1519年 11月 15日 己卯士禍가 야기되기 직전까지를 기록한 것이다.

金自庵의 官職은 주로 守職으로서 移拜가 빈번했던 것을 보아도 君主의 총애가 두터웠던 것으로 이해된다.

(二) 流 配 生 活

北門禍(1519) : 1519年 自庵이 32세 되던 해 己卯年 11月 15日에 北門禍(己卯士禍)가 일어남에 靜庵 趙光祖(1482~1519)와 冲庵 金淨(1486~1520)이 함께 下獄되어 鞠問을 받았는데 金自庵은 "臣의 나이가 32세로 本性이 庸愚하나 古人을 崇慕하고 師友 同志를 가려서 交遊하며 착한 자를 좋아하고 악한 자를 미워하며 다만 公論을 믿을 따름이었고 國論의 顛倒과 朝政의 日非는 臣의 뜻이 아니다"라고 공술하였으나 마침내 開寧으로 杖配되었다가 同年 12월에 죄를 추가 하여 南海로 流配되니 이곳 竹林에 書堂을 마련하고 起居하였다.

獄中上疏 : 이렇게 開寧으로 杖配되어 죽음을免하게 된것은 당시 領相이요,士林을 두호한 鄭光弼의 救援때문이었다.

그의 獄中上疏 중에 <天日이 照臨하는 바로 無他邪心이읍니다.> <다행이 임금님께서 직접 국문해 주신다면 한번 죽어도恨이 없겠습니다.> 등등 간절한 내용이 있었으나 엄청난 土禍의 渦中에서 결국 그의 호소는 奏効하지 못하였다.

경남 南海流配로서 13年인 辛卯年에야 특사를 입어 禮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가 이어 嚴陵로 量移하다는 명을 받고 自庵은 湖南으로 가고 家眷은 禮山으로 보냈다가 2年 後인 1553年(癸巳)에 풀려나왔다. 그가 南海流配 중에 있을 때 考妣喪을 당했기 때문에 석방이 되자 禮山 宗敬里의 考妣墓所에 먼저 省墓했다. 이날 묘소 앞 土橋에 이르러서 馬上에서 떨어져 重傷을 입은 病으로 世上을 떠났다. 향년 47세였다.

宣祖 때 光國原從功一等에 올랐고, 逝去한 뒤 57年 되던 1591年(辛卯) 5月 22日 參先考縣監公에게는 承政院右承旨를 追贈하고, 先生에게는 嘉善大父史曹參判兼 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를 贈職하였다. 金自庵은 文章家일 뿐 아니라 朝鮮朝 四大書家의 한 분으로 「自庵筆帖」과 「宇宙盈虛帖」의 模刊이 세상에 傳히지고 있다.

(三) 自庵의 詩歌文學

自庵의 詩歌로는 時調 5首와 景幾體歌인 花田別曲 6章과 漢詩가 있다. 먼저 國文詩歌를 살펴보고, 漢詩 몇 편을 번역해서 그의 文學世界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時調는 그의 作詩背景을 붙이고, 花田別曲은 지금까지 試釋이 없으니 만큼 통석을 붙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漢詩는 詩的 機能을 살펴 詩歌와 關係를 보고자 한다.

(1) 時調와 그 作詩 背景

- 1) 山水 노린골래 三色桃花 피오거늘
내성은 豪傑이라 옷니브게 들음이
다고 조란 신더안고 브레 들어 속과라.
- 2) 泰山이 높다하여도 하포아래 되히로다.
河海깊다 하여도 싸우 히드리로다.
아마도 높고 김플슨 聖恩인가 호노라.
- 3) 여 괴물 더괴삼고 더기를 예삼고
더어 괴물 멀게도 삼길시고
이물이蝴蝶이 되어 오명가명 호리다.

- 4) 나온다 今日이야 즐거온다 오늘이야
古往今來에 類업슨 今日이여
每日의 오늘고루면 ㅁ슴성이 가시리.
- 5) 율히 달은다리 학 다리 되도록에
거른 가마피 해오라비 되도록에
享福 無疆 ㅁ샤 億萬歲를 누리쇼셔.

自庵의 時調를 一瞥할 때 字數에 있어서 正律적 字數律에 엄격하지 않았으나 형식은 지켜졌다. 그런데 다섯 수 時調 중에 歌番 4), 5)는 文集에 詩作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中宗 때 自庵이 玉堂에서 당직을 하던 어느 날 달밤에 촛불을 켜놓고 「綱目」이란 책을 읽고 있었다. 문득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누구나 하고 내다보았더니 임금께서 廳上에 계시고 별감이 酒僎을 가지고 따라와 있었다.

君臣의 禮 쓰지 : 金鍊가 급히 뜰 아래 내려가 얼드린 즉 中宗께서 “이같이 달 밝은 밤에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왔으니, 이 밤은 君臣의 禮를 쓰지 말고 朋友로 상대하자 하니 어려워 말고 내 걸음으로 오라” 하였다. 이리하여 술상을 놓고 마주 앉아 수작을 하게 되자 中宗이 다시 말씀하기를, “글 외는 소리가 清雅하니 필시 歌曲에 능할 것이라 나를 爲해서 노래를 불러달라” 하였다. 自庵이 품어앉아 대답하기를 “오늘 聖恩이 古속에 없는 일이오니 옛노래나 지금의 곡조로 아뢰기 보다는 臣이 스스로 지어서 아뢰겠습니다” 하고 즉석에서 부른 노래가 歌番 4)이다.

再唱을 청하는 : “나온다 今日이야 즐거온다 오늘이야

中宗 古往今來에 類업슨 今日이여
每日의 오늘고루면 ㅁ슴성이 가시리”

中宗께서는 再唱을 청하셨다. 그것이 다음의 歌番 5)이다.

“율히 달은 학 다리 되도록에
거른 가마피 해오라비 되도록에
享福 無疆 ㅁ샤 億萬歲를 누리쇼셔”

노래 듣기를 마치고는 거듭 칭찬하면서 “그대에게 老母가 있음을 들었으므로 갖옷(貂裘)을 주는 것이니 가져다가 드러라” 하고 마무를 내려셨다 한다. 좋아라 오늘이야 즐거울사 오늘이야 유례가 없었던 오늘 날마다 오늘 같으면 성가신 일이 있겠는가. 거듭 노래하기를,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만큼 길어질 때까지, 검은 까마귀가 흰 해오라기처럼 변해질때까지 복을 받아서 억만년을 누리실 것을 기원하셨다.

나의 기쁨이요 : 첫 노래는 나의 기쁨이요, 둘째 노래는 입금에 대한 축원이다. 그 입금을 축원하는 노래 의 시조 작품에서는 歌番 1), 3)의 두 수는 自然의 叙景을 친화적으로 읊었고, 재기가 호걸스런 성품을 보인 작품이다.

(2) 花田別曲과 漢詩

天之涯 地之頭 一點仙島
 左望雲 右錦山 巴川(봉내) 高川(고내)
 山川奇秀 鍾生豪俊 人物繁盛
 偉 天南勝地 景거 엇더ㅎ닝잇고
 風流酒色 一時人傑再唱
 偉 날조차 몇분이신고

河別侍 芷芝帶 齒爵兼尊
 朴教授 손저이 醉中버릇
 姜綸雜談 方勳肝睡 鄭機飲食
 偉 品官齊會景거 엇더ㅎ닝잇고
 河世淸氏 발버훈 風月 再唱
 偉 唱和景 거 엇더ㅎ닝잇고

○徐玉非 高玉非 黑白領殊
 大銀德 小銀德 老少不同
 姜今歌舞 綠今長短 버린學非 소졸王只
 偉 花林勝美景거 엇더ㅎ닝잇고
 花田別號 名實相符再唱
 偉 鐵石肝斷이라도 아니. 굿거리업더라

漢元今 以文歌 鄭韶草笛
 或打鉢 或扣盤 間擊盞盞
 搖頭輓身 備諸醉態
 偉 發興 景거 엇더ㅎ닝잇고
 姜允元氏 스루랭딩소러再唱
 偉 뜻피야 즈드로리라

○綠波酒 小麴酒 麥酒濁酒
 黃金鷄 白文魚 柚子羹 貼匙臺에
 偉 7목 브어 勸觴景거 엇더ㅎ닝잇고
 鄭希哲氏 過妻田大醉再唱
 偉 어니계 슬플저기 이실고

○京洛繁華 아 너는 불오나
朱門酒肉이야 너는 도나
石田茅屋 時和歲豊 鄉村會集이야 나눈 도하하노라

지금까지의 각종 古詩歌集에 依하면 花田別曲의 轉載에는 誤字가 많다. 또 우리가 6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原典에서는 4 단락으로 구분한 上記의 '○' 표를 보이고 있다. 먼저 原歌의 體格을 붙여 보기로 한다.

① 天涯 地角에 있는 한 점 섬이 왼쪽은 望雲이요, 오른쪽은 錦山, 巴川, 高川인데

山川이 아름다와 준수한 호걸들이 輩出되어 人物이 번성하도다.

위(偉) 남쪽 땅 승경이 어떠하더냐

풍류와 酒色의 호걸들이, 풍류와 酒色의 호걸들이

위(偉) 나와 모두 몇 분이시고.

② 河別侍 芷芝는 나이도 많고 벼슬도 높다.

朴教授를 帶同해서 醉中에 손 짓는 버릇

姜輪은 雜談하고 方勳은 코를 골고

鄭機는 먹고 마시다.

위(偉) 官品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광경이 어떠하더냐

河世消의 풍월도 듣기 좋고, 河世消의 풍월도 듣기 좋고

위(偉) 唱和의 광경은 어떠하더냐.

③ 徐玉도 高玉도 黑白도 아니고

大銀德 小德銀과 다른 곡조, 老少가 다르며

姜今の 歌舞와 綠今の 장구, 學非 소졸 玉只가 펼쳐지도다.

偉 花林의 아름다운 광경은 어떠하더냐

花田이란 別號가 실제와 부합되도다, 花田이란 別號가 실제와 부합되도다.

위(偉) 철석같은 간장이라도 아니 적이리 없도다.

④ 漢元今の 以文歌와 鄭韶의 풀피리 바리대도 두들기고

반도 두들기고 가꿈가다 잔대도 두들기고

머리를 흔들고 몸도 비비틀어가며

가지가지로 취한 태도를 보이네.

위(偉) 각기 흥취를 푸는 광경은 어떠하더냐.

姜允元의 스래딩소리, 姜允元의 스래딩소리

위(偉) 듣고야 잠을 이루리도다.

- ⑤ 綠波 小麴酒 麥酒 濁酒와
 黃金鷄 白文魚 안주 柚子羹 貼匙간대
 위(偉) 가득 부어 권키니 잠는광경은 어떠하더나.
 鄭希哲이 밀밭만 지나도 大醉하는 모양(再唱)
 위(偉) 어느 때 술을 적이 있으라.

- ⑥ 서울의 변화함을 너는 부러워하느냐.
 대궐 안의 酒肉을 너는 좋아 하느냐.
 薄土에 농사짓고 초가에 살면서도 초가에 살면서도
 시대가 태평하고 풍년 들어 온 동네가 한 자리에 모여
 즐거움을 나는 좋아하도다.

景幾體歌의 詩作은 고려 때 翰林別曲에서 비롯하였다. 위의 花田別曲이 翰林別曲의 형식에 부합되는 것은 第6章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소간 벗어난 것들이다. 이는 景幾體歌에 있어서 이미 形式의 변모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試作態度를 보면 翰林別曲을 상당히 본따서 朝鮮朝의 景幾體歌로는 상당히 (궁호방탕)한 종류의 작품이다.

李明九氏도 翰林別曲 이후의 제 작품은 그 모두가 翰林別曲과 같은 形式은 아니라고 했다. 이 花田別曲의 形式도 그 기준 형식에서 크게 변모해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翰林別曲의 정제된 형식으로부터 변형을 보여 준다.

그런데 第1章의 (偉 날조차 몇 분이신고), 第4章의 (偉 뜻피야 종드로리라)는 翰林別曲과 恰似하고, 第6章은 상대별곡의 第5章과 恰似하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대방의 振興의인 성격보다는 한림별곡의 개인적인 풍류와 恰似하나 것처럼 자유분방하지는 못하다. 그의 生活에서 온 우수와 체념을 애써 극복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다음은 花田別曲에 나오는 人名에 대하여 찾아 보고자 하는데 鄭炳昱氏는 말하기를,

「花田別曲」은 당대 남해 碩學들을 고루고루 소개한 점에서 더욱 호감이 간다. 제 2권에 나오는 河別侍는 누구인지 알수 없으나 朴教授는 自庵集에 의하면 「送別教授朴緩」이란 詩題로 보아 朴緩인것 같고, 姜倫, 方勳, 鄭機, 河世濟, 鄭韶, 姜允元, 鄭希哲 등 여러분은 남해의 世承있는 가문의 譜冊에서 뒤이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진 분이나, 또 흥미를 가진 분은은 보혜를 들춰보도록 권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의 漢詩에서 보면 ①「送別教授朴緩」「戲贈河清與」(名世濟)「鄭校釋後依次姜倫韻」(字理之) 등 우선 세 사람에게 지어준 漢詩가 있고, 그 밖에 몇 권을 다음에 번역해서 보이자고 한다. 自庵集中에 漢詩는 卷之一에 다음과 같은

目次를 보이고 있다.

五言絶句十七首, 五言四韻九首, 七言短律一首

七言絶句三十四首, 七言四韻十三首, 五言長篇二首
모두 76 首이다.

(四) 自庵의 詩精神

그러면 花田別曲에 나오는 人物에게 준 漢詩와 함께 고찰하여 그의 詩精神을 살피고자 한다.

1) 次錦峰廷道士押(四首)(廷名世弘)

(其一) 僊僮羅褐遠相過
披却琴書若紫霞
看羅悅如移白鶴
飄然蜚到玉皇家

錦峰廷道士의 押韻을 次韻한 四首

명굴옷을 입은 仙人의 시종이 왔다간 다음
거문고와 서책을 띠고 보니 紫霞가 일어나네.
보기를 마치고 향홀하게 白鶴을 타고
표연히 玉皇을 집에 오른 것 같구나.

(其二) 悄悄幽居坐竹林
開樽空翠引輕陰
酌來當却流霞飲
誰識塵間養道心

고요하게 고적한 삶이 대숲에 앉아
술단지를 열고보니 하늘 푸른 빛이 가볍게 그늘지우네.
부어마시니 노을이 목으로 넘어가는 듯 하구나.
塵世에 있으면서 道心을 기르는 줄 뉘라서 알고.

(其三) 碧桃花發嘆蒼林
春去花殘見綠陰
玄觀主人歸去早
花開花落自春心

碧桃花가 대숲에 비치는데
봄은 가고 꽃이 쇠잔해지며 綠陰이 보이누나
玄妙한 道理를 아는 道人은 가버리고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 자연스런 봄의 뜻이구나.

(其四) 仙臺掩映碧桃花
 深同○寒逗洞陰
 金龜石門多歲月
 還誰舟識葛洪心

神仙이起居하는 곳 碧桃의 숲 일레라.
 洞壑은 서늘하여 산골 그늘에서 머뭇거리네.
 신선이 살고 있는 곳 옛 뜻이 유난히 길구나.
 배(舟)를 둘러러하나 누가 葛洪의 마음을 알고.

2) 戲贈河清受(名世消)

一壺清會近清流
 到手杯殘慎莫留
 恨子詩憑酒借力
 從前梯稗已先秋

河清叟에게 희롱하는 글을 보냄

한병 술로써 淸流水 가까운 곳에 모이노니
 술잔이 손에 닿거든 멈추지 말고 마셔주오.
 자네는 술이 있으면 더욱 잘 作詩가 되나니
 가을 들판에 피(梯稗)가 먼저 여무는가?

3) 鄉校釋尊後飲次姜論韻(字理之)

橋樹楓林過撰春
 斯文高會憶成均
 傍人莫教吹長笛
 一曲聞來種髮新

향교 제향 후 마시고(음복)姜論의 글을 次韻

굴나무 단풍나무 있는 여기서 몇 해나 지났는고.
 斯文들의 모임 문묘행사를 憶念함일세.
 사람들은 함부로 長笛을 불지말아라.
 한곡조 들을 때마다 머리털이 오싹하여라.

4) 送徐兌元還鄉(字元之南海訓學也)

天涯清官帶永雪
 偷却春風七月秋
 只恃百年心力健
 莫嫌今日白侵頭

徐兌元의 還鄉을 전 송

이 天涯의 그대 (清官)가 들어 올 때는 永雪期였는데
春風을 맞고 보내고 지금은 七月 秋라.

百年 동안은 몸과 마음 근셀 줄 믿었는데
오늘날 흰 머리털 침노함을 혐의한들 무엇하랴.

5) 送別教授朴緩 (辛卯 五月十九日)

知己分携處 滄波思不窮
天連山勢遠 烟惹樹陰重
萬事是非外 百年詩酒中
尋常君得此 漂泊媿衰翁

朴緩을 보냄

참된 친구끼리 만나고 헤어지던 곳에
滄波를 바라보며 생각하기 끝이 없구나.
하늘이 멀리 이어졌으니 山勢가 멀리 보이고,
연기가 일어 나무 그늘이 겹겹이고,
세상사 내가 알아야 할 바가 아니고
百年 동안은 詩 짓고 술 마시는 중에 지나가도다.
그대 이 길 떠남을 예사스레 여기나
나도 노쇠한 몸, 漂泊을 부끄러워하네.

6) 贈清虛禪子

竹室生磬聲 磬聲透空碧
嶺樹啼子規 庭松坐白鶴
潺潺水石喧 洗研山月落
飄如一片雲 此老誰能識

清虛에게 주는 글

竹室에서 경쇠 소리가 나니
그 소리가 창공에 이르리네.
산마루 나무에서는 자규가 울고
뜰안 소나무에 白鶴이 앉아있다.
잔잔한 물소리가 돌 거렁에서 들레이고
술그릇을 씻으며 보니 山月이 기우는구나.
한 조각 구름같이 가볍게 여겨지는데
이 늙어짐을 누가 능히 알겠느냐.

7) 羈 臣

萬死徵臣地盡頭
寸心憑寄禁城秋
家山路接天南斷
蠻海波連漢北流
綠髮漸隨黃葉變
丹衷空向碧天悠
幽懷看取中宵月
千里相思莫滯留

귀양살이 臣下

만번 죽어야 할 신하 天涯에 있네.
마음은 서울(禁城) 가을에 붙었더라.
고향(家山)의 길은 南天에 끊어지고
蠻海의 물결은 漢北에 이어져 흐르더라.
꺼번 머리털 황엽을 따라 변하고
丹心은 푸른 하늘을 향해 멀었더라.
그윽한 희포 달을 바라보며 숫구치고
千里에 서로 생각하는 것을 늦추지 말자.

8) 思 鄉

故鄉을 생각하며 :
노래 한다.

思鄉日日上高峰
消息茫茫海嶽重
餌盡孺人封藥裏
綻來慈母寄衣縫
窮途孤詠難憑興
愁處深杯易見功
自分生涯兩地老
一聲欣聽北來鴻

故鄉을 생각한다

날마다 고향생각에 高峰에 올랐으나
소식은 아득하고 바닥 산만 겹쳤더라.
아내가 보낸 藥봉지 먹어 없어지고
어머니 지은 술깃이 텅텅더라.
窮途에 詩 읊으니 흥이 어이 있을까

가득한 술잔만이 근심을 씻겠구나.
 내 生涯 南地에서 늙을 줄 알건마는
 北에서 온 기러기 소리 반갑게만 들리네.

自庵은 자신의 流酒地를 (天涯)로 파악한다. (送徐兌元還鄉) 이
 곳에서 세상의 모든일은 (한 조각 구름) (一片雲)에 불과한 것이
 다. (贈淸虛禪子) (세상사 내가 알바야 할 바가 아니고 / 百年
 동안은 詩 짓고 술 마시는 중에) (萬事是非外 / 百年詩酒中) 지나
 가 버리는 것이다. (送別教授朴緩) 이러한 태도는 人生을 포기한 데서 온 것
 이라기 보다는 人生을 超越하려고 하는데서 온 것이다. (塵世에 있으면서 道
 心을 기르는 줄 뉘러서 알고) (次鍾峰延道士押韻四首<其二>)란 말에서 있
 듯이 그의 人生觀은 道家에 그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그의 漢詩가 환상적
 이고, 감각적이며 때로는 幽玄하기조차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술잔지를
 열고 보니 하늘빛이 그늘지고 / 부어 마시니 노을이 목으로 넘어가는
 듯 하구나) <其二>)와 같은 것은 대단히 뛰어난 감각적 표현이다.
 이러한 경지는 白鶴을 타고 표현히 玉皇家에 이른 것과 같은 것, 말
 하자면 그것은 한마디로 황홀한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같은 詩<其
 三>) 그것은 슬퍼할 여유조차 없는 경지에 있는 것이면서(贈淸虛
 禪子), 또 동시에 그 늙음을 여유자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도 한 것이다. (送徐兌元還鄉) 그래서 참된 친구를 멀리 떠나 보낸
 때는 <萬事是非外 / 百年詩酒中>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늙은 몸이 아
 적도 漂泊하고 있음을 부끄러워 하는것(送別教授朴緩)도 自然스러운 것이다.

流配地生活과 文 : 自庵은 말하자면 이런 家道的 人生觀 아래 流配地인 南海에서 그의
 學生生活 挫折과 외로움을 술과 詩로써 달래며 風流를 즐겼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달리 보면 自庵文學은 現實에 등을 돌리고 玉皇家의
 황홀함을 추구한 非現實的인 文學이라고도 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詩調1)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景幾休歌인 花
 田別曲이 풍류와 술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自庵文學에 나타나는 道家風은 그가 謫所生活를 견뎌내는 하나의 방
 편일 수도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 주는 漢
 詩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羈臣」과 「思鄉」이다. 이 두 詩는
 그의 詩의 自我가 가장 명백하고 또 솔직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그는 이들 詩에서 流配地의 쓸쓸함과 좌절과 고통을 숨김없이 드러내
 고 있다.

아내가 보낸 藥봉지 먹어 없어지고
 어머니 지은 옷이 술깃이 터졌어라.
 窮途에 詩 읊으니 흥이 어이 있을까

가득찬 술잔만이 근심을 씻겼구나.

~ 「思郷」의 一部 ~

이 詩에서 그는 그의 곤궁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다. 그의 곤궁함을 씻어줄 藥은 〈아내가 보낸 藥봉지〉에서 〈가득찬 술잔〉으로 바뀐다. 술은 그의 고통을 잊게 해 주는 藥이다.

風流와 道家風: 여기서 우리는 그의 風流와 道家風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文學에서 보이는 道家風이나 風流가 講所生活에서 나타난 것이고, 또 그 講所生活을 이겨내려는 일종의 방편이며, 이것이 결국 그의 詩의인 말(persona)을 형성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이것은 다른 流配人들이 학문에 정진했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4) 望郷의 詩人

自庵 金鍊의 生涯가 己卯士禍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그의 學問的 諸述文章이 온전히 남지 않을 것 같다. 먼저 自庵集 중에서 自庵集 간행 경위와 先儒들의 評語를 말해하여 自庵研究의 資料로 삼고자 한다.

自庵 讀序文들: 첫째, 自庵의 外女孫인 安應昌은 自庵集 序文에서 말하기를 中廟朝時 群賢이 蔚興한 中에서도 自庵 金先生과 趙靜庵, 金冲庵諸公이 斯文을 興起하고 至治를 挽回하기에 힘쓰다가 불행히 己卯禍作으로 一時士類가 모두 禍를 입었음은 실로 可痛한 일이며 先生의 著述이 前後兵火로 保全하지 못한 것도 실로 可惜한 일이다. 나의 先人은 先生의 外曾孫으로서 약간 詩文을 收拾하여 巾几에 감추어 두었으나 간행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不肖가 마침 聞詔郡宰를 맡아서 봉급을 가지고 刊役을 함으로써 先志를 잇(繼)노라.

라고 하였다.

둘째, 溫城 鄭斗郷은 自庵集 第二序文에서 말하기를

己卯名賢 金先生이 세상을 떠나신지 數百餘歲가 지나도록 文集이 간행되지 못하였음은 恨스런 일이었던 바 이제 그의 外孫인 義城守(郡守) 安應昌이 간행한 것은 실로 斯文의 一大幸이 아닐 수 없다 하고 安應昌의 말을 끌어와서 「義城守가 말하기를 國家의 災는 兵火로 著述이 모두 亡失되었는데, 先人 順陽府院君이 散失된 나머지를 網羅해두어서 오늘을 기다린 것이다. 先賢의 저술을 남들도 애석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子孫된 자가 어찌 무심하게 지나버리리요」하니 “義城守 父子의 精誠이 놀라운 일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先生이 玉堂에 당직하실 때, 달밤에 글 읽는 소리를 中宗께서 듣고 술을 가지고 親臨하시어 朋友로 대접하고 즐겁게 醞酌하시고 貂裘를 내

러 주셨으니,古今을 통하여 이런 恩遇가 언제 있었던가”
라고 하였다.

셋째,尹根壽가 自庵詩帖을 본 소감에서 말하기를

諸賢의 논의에 文이라면 漢, 詩라면 唐, 眞草라면 晉, 人物이라면 宋
이 네가지 觀法으로 한 평생을 종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
었는데 이제 이 詩帖을 보니 과연 유감없이 갖추어져 있다.

라고 하였다.

네째는, 成均館 大司成 知製教인 金世濂이 쓴 墓碑銘 並序에서 말하
기를

先生이 司馬試에 응하였을 때 考官이 극도로 歎賞한 批辭로 「韓退
之가 지은 글이요, 王羲之가 쓴 글씨」라고 하였으니 실로 國朝에
서도 드물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筆法이 強建하여 世上에서
「仁壽體」라고 하였음은 先生이 仁壽坊에서 기거하신 까닭이었는데
글씨가 華人들에게 많이 팔려 나가는 것을 알고부터 글씨를 안쓰서
서 세상에 전해지는 글씨가 드물었다.

라고 하였다.

이같은 諸賢의 論證으로 보면 自庵 金隸는 재주가 뛰어난 분이요,
文章과 名筆의 才藝를 兼備하였으나 여러가지 연유로 해서 그것을 발
휘하지도 못했고 後世에 보존되지도 못한 것 같다. 위에서 살펴 본 약
간의 詩文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끝맺고자 한다.

己卯名賢들은 朝鮮朝에 있어서 國政을 改革하여 道義國家의 理想을
達成하려고 했던 분들이다. 그 실천주의자가 바로 靜庵 趙光祖 先生
이었다. 己卯士編에 趙光祖는 大司憲이었고, 金淨은 刑曹判書였고 金

는 副提學이었고, 金湜은 大司成이었다. 처음 이 네분에게 賜死를 명했다가
후일 趙光祖와 金淨만 賜死하게 하고 金湜, 金球는 杖一百을 벌하여 絕島에
安置하게 했는데 金湜은 居昌에서 「君臣千歲義」란 詩를 짓고 자결하
였다. 그의 호는 沙西인데 道學少壯派로서 세칭 己卯八賢의 한 분이다.

윗 분 중에서 三庵(趙光祖, 金淨, 金隸)의 한 사람인 金自庵을 보
면, 名門에 태어났고 재주가 있었고 일찍 등용되어서 임금의 총애를
받아 내직에서도 여러 곳을 거쳐서 장래가 촉망되었던 분이다.

1517년 己卯士編 때 그의 나이가 32세였다. 다행히 죽음에서 면
하여 南海에서 적소생활을 12년간 했다. 여기서 그는 무엇을 하였던
가. 대개 우리의 先賢들이 유배생활에서 유익한 저술을 남긴데 비하면
金自庵은 학문적 업적을 쌓지 못하고 詩酒(積稿된 것도 없지만)로
세월을 보냈을 뿐 강인한 의지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窮途孤詠難應興
/ 愁處深杯易見功> (思鄉) 그의 南海의 詩歌인 花田別曲에서는 道
放蕩의이고 樂天의인 모습이고 漢詩「次錦峰延道士押四首」에서는 道

家的인 취향을 보이고 있다. 作品〈羈臣〉에 依하면 임금을 爲한 一片丹心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 밤의 달을 쳐다보고 회포를 달랠 수 없었다.

그는〈千里의 想思를 더 지체하지 말고 불러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한편 〈京洛繁華야 너는 불오라 朱門酒肉이야 너는 도# 나 石田茅屋時和歲豐 鄉村會集이야 나는 도하# 노래〉(花田別曲)하고 역설적으로 체념하기도 한다. 지난날의 憧憬과 갈등이 교착한다. 鄭松江의 「思美人曲」과 鄕土의인 環境을 간취할 수 있다.

T. S 엘리엇가 文學的 遺産을 소홀히 하는 국민은 野蠻해지고, 文學을 낚지 못하는 국민은 理性과 感性의 活動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라고 하였다.

自庵은 文學的 感性이 풍부했던 詩才의 人物이였는데, 積稿를 하지 못한 탓인지 남은 作品이 많지 않다. 그러나 「花田別曲」 한 편은 그 표현에 있어서나 소재에 있어서나 翰林別曲을 방불하게 하는바 많다 하겠다. 그 제 2 連에 나오는 河別侍(世濟) 朴教授, 姜倫, 方勳, 鄭機, 鄭麗, 姜允元, 鄭希哲 등 南海에 世居하는 人物에게 교화를 주었을 것이고 嶺右는 流配地域이 있는 관계로 庶民과 접촉되므로 流配文學은 庶民文學과 接脈될 수 있다. 그러므로 庶民文學 歌壇인 「風月香從」에 영향을 주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더 研究해 볼 만한 課題이다.

그리고 宣祖때 追贈된 후에 禮山의 德岑書院에 祭享되었으며, 이어서 臨岐의 鳳巖書院등에 祭享되었으며 文懿公이란 諡號가 내려졌다. 先生은 많은 遺文을 남겼으나 土禍로 보다. 散逸되고 겨우 若干의 遺文을 담은 自庵集二卷一冊이 傳해질 뿐이다. 先生의 글씨도 外祖 李謙仁의 墓文이 있으며, 文獻으로는 中宗實錄 知退堂集(李廷馨), 靜庵集(趙光祖), 冲庵集(金淨), 思齊集(金正國), 海東名臣錄등이 있다. (筆者 姜周鎭 傳士韓國文化院聯合會長)

龍溪 李 榮 元 (1565~1623)

仁祖反正의 據處가 된 龍溪鄉莊

鄉約社會造成

德山邑誌의 人: 『德山邑誌』人物條에 보면 李榮元 李春元 從兄弟의 이름이 올라 있다. 그들이 어떤 인물이었던지는 그 이름 아래 간략하게 소개한 略傳에 의해서 대강 짐작할 수 있는바 우선 李榮元條의 내용을 옮겨보면 「字는 子善이고 號는 龍溪이다. 학문에 종사하여 沙溪 金先生 龜峰 宋翼弼을 스승과 벗으로 삼았고 詩名은 또 從兄弟인 九峯公과 並稱되어 李東岳, 金淸陰, 權石洲 등 諸公과 더불어 서로 酬唱하였으며 晩年에 이르기까지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으므로 同流들이 推重하는바 되었다. 癸亥 反正 초에 行誼로 조정에 천거되어 불러 쓰려 했지만 나가지 못하고 돌아가니 士林이 아까워했다. 遺稿가 있어 刊行되었고 縣의 북쪽 高山面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이 간단한 記事만으로도 李榮元이 당대 제일급 性理學者로 詩名을 날리던 國中名士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德山縣 高山面: 그러면 이제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다.

世居之地

그의 집안은 本貫이 咸平인데 5代祖 李從生 (1423~1495)이 李施愛 胤 (1467)의 평정 과정에서 武功을 세워 敵愾三等功臣으로 咸城君에 被封되고 벼슬이 漢城府左尹兼 五衛都摠府副摠官에 이르자 家格이 상승하여 비로소 京班의 班別에 들게 된다. 그래서 咸平의 故土를 떠나 京居의 터전을 마련하였던 듯하니 李從生의 묘소로부터 羅州 先塋을 벗어나 廣州 西部面 甘北里에 자리를 잡는다. 그런데 이 莊讓公의 諡號를 받은 咸城君 李從生의 두 아들 중 막내인 恭이 大興縣監을 지내면서 인근 德山縣 高山面 즉 岳尾에 子孫世居之地를 마련하니 지금 古德面 夢谷里 上夢里 一帶이었다. 이 터를 마련한 恭은 京第에서 일찍 돌아가 廣州 先塋에 묻히게 되지만 뒷날 夫人 善山金氏가 獨子인 世達과 함께 高山으로 내려와 살았던 듯 善山金氏로부터는 이곳에 산소가 쓰여진다.

넉넉한 財力으: 이렇게 高山으로 내려와 살기 시작한 左通禮 世達이 바로 李榮元의 曾祖로 施惠로 人가 되는데 그는 佐理功臣으로 吏曹判書를 지낸 鄭蘭宗 (1433~1489)의 마음을 얻다. 바로 아래 동생이자 領相 鄭光弼 (1462~1538)의 四叔父인 沔川郡守 鄭蘭元의 婿郎이 되어 名門으로의 지위를 굳힌다. 그는 비록 벼슬이 司直 (正5品)이라는 西班 명예직에 그쳤지만 착실하게 家産을 늘려있던듯 그 獨子인 允字 (1503~1552)가 巨富를 칭할 만한 遺産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允字는 將才로 천거되어 義興衛 部將, 司導寺 主簿, 司憲府 監察, 安陰縣監 등을 거쳐 鎮川縣監이 되었을 때 管內에 橫行하는 盜賊을 討捕하고 보니 모두 權臣들의 친척이어서 포상을 받기는 커녕 도리어 탄핵을 받기에 이르자 과감히 벼슬을 내던지고 鄭廬로 물러 나와 悠悠自適하면서 餘生을 보내는데 넉넉한 財力으로 주변에 많은 施惠를 베풀어 크게 인심을 얻는다. 이와 같이 財力이 튼튼하였으므로 允字 역시 外家에 못지 않는 名門家와 혼인하였으니 明宗이 직접 나라에 없는 귀한 인물이란 뜻으로 崔

邦貴라고改名시킬만큼 清白吏의 표본이었던 分의 婿郎이 된 것이다. 이 崔邦貴는 뒷날 丙子胡亂(1636)을 수습하는데 수완을 발휘하였던 명제상 崔鳴吉(1586~1647)의 族曾祖로 그 曾祖와는 八寸兄弟의 親分이 있었으며, 崔邦貴의 外舅(장인) 尹濬는 領相을 지낸 茂松府院君 尹子雲(1416~1478)의 자제로 세종대에 集賢殿 副提學과 弘文館 大提學을 지낸 大學者 尹淮(1380~1436)의 曾孫이었으니 崔氏의 門閥은 당시 가히 一級에 속한다 할 만하였다.

崔氏夫人 李門: 이 崔氏夫人은 11세에 李門에 出嫁하여 와서 80세까지 長壽를 누에 出嫁 女中君 리는데, 42세에 喪夫한 이래 高山 鄉莊의 家基를 더욱 굳건히 다져 놓아 자손들이 學問에 종사하는데 조금도 용색하지 않을 만큼 많은 富를 축적하였던 듯하다. 그래서 “女中君子”니 “가슴 속에 國子監이 들어 있다”는 등의 칭송을 들었다고 한다. 이런 부인이나 그 子婦들을 보통 집안에서 데려올 리가 없다.

高陽郡守를 지낸 長子 瑢(1526~1603)은 明宗 國舅 靑陵府院君 沈綱(1514~1567)의 季父로 일시 정권을 천단하던 左相 沈通源(1499~)의 사위가 되어 明宗妃 仁順王后 沈氏의 당고모부가 된다. 그러나 沈氏가 夭折 無後하자 太宗王子 溫寧君 程의 胄子孫인 生員 李毅의 따남을 제취로 맞이하는데 李毅는 燕山君 12年 丙寅(1506) 5月 30日에 士林의 黨與라 하여 一父五子 六公子가 同日 被讞되어 名門 宗室로 등장하는 牛山君 顯의 曾孫이며 龍城君 援의 胄孫이고 靈陽 正 潮의 長子이었다. 다음 監察 벼슬을 지낸 次子형(珩)은 右參贊 申英(1499~1559)의 四女婿가 되는데 바로 윗 동서인 三女婿는 沙溪 金長生(1548~1631)의 부친인 黃岡 金繼輝(1526~1582)이었으며 象村 申欽(1566~1628)은 그의 妻姪이 되어 妻族 門閥은 가위 일급이라 할 만하였다. 末子 瑒(瑒: 1550~1580)의 妻家는 더욱 문벌이 높아 四代에 걸쳐 駙馬都尉가 나고 元宗 國舅를 배출한 綾城具門이었으니 그 자신도 中宗 五女 淑靜翁主 駙馬인 綾昌尉 具瀚의 따남에게 장가들었다.

三代巨富에다國中名族과 連婚 이렇게 三代에 걸친 巨富에다 國中名族과의 連婚은 필연 名士의 배출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崔氏夫人이 키워낸 諸孫들 가운데 瑢의 末子인 榮元(1565~1623)과 瑒의 次子인 春元(1571~1634)이 그런 인물이었다.

榮元은 宗室 名門 출신인 李氏夫人의 소생인데 예초에 俊才로 태어나서 文調가 夙成하되 특히 詩는 天品으로 타고난 듯 꾸미려하지 않아도 語意가 清新超逸하여 남들이 그에 미칠수가 없었으므로 서울 사림들이 얼굴은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모두 그 詩를 입으로 서로 전하여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 한다.

詩酒로 自娛하되 그러나 그의 탁월한 성품이 무엇에 얽매이지 않으려 하여 속된 일에 며 性理學 研究 종사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니 일찌기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오직 마음대로 山水間에 노닐면서 詩酒로 自娛하고 性理學 연구에 몰두하여 그

이념을 實踐躬行하는데 率先垂範하는 달숙한 생활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는 그가 仲父 珩의 손윗 동서인 黃岡 金龜輝집안을 통하여

沙溪 金長生 : 栗谷 李珥 (1536~1584)에 의해서 집대성되는 朝鮮性理學의 참신한 과 交游하며 學理에 접하고 이에 깊이 傾倒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栗谷선생이 그가 20세 나는 해 들어가 그 門下에 직접 나아가 배울 기회는 얻지 못하였지만 栗谷의 首弟子로 그 嫡傳을 이어 받은 沙溪 金長生과는 깊은 交游관계를 맺으면서 栗谷 學問의 背後라고 일컬어질 만큼 栗谷과 뜻을 같이 하던 龜峰 宋翼弼 (1534~1599)에게 나아가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龜峰은 본디 右相 安塘 (1460~1521)의 賤妹 소생인 宋祀連 (1496~1575)의 長子로 宋祀連이 辛巳誣獄 (1521)을 일으켜 安氏一家를 비롯한 士林을 屠戮하고 그 공으로 堂上의 品階를 받아 비술이 兪中 樞府事에 이르렀으나 宣祖 19년 (1586)에 이 獄事가 誣獄임이 밝혀져 賞職이 追奪되고 다시 庶類로 落着되는 不美스런 과거를 지낸 寒微한 집안 출신이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 李山海 (1539~1609), 崔慶昌 (1539~1583), 白光弘 (1522~1556), 崔崐 (1539~1612), 李純仁 (1543~1592), 尹卓然 (1538~1594), 河應臨 (1536~1567) 등과 함께 八文章으로 일컬어졌고 初試에 高等으로 합격하였으나 身分 탓으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에 龜峰은 出仕를 단념하고 高陽 龜峰山 아래 은거하여 栗谷과 牛溪 成渾 (1535~1598)을 사귀면서 性理學연구에 몰두하여 一家를 이루고 이들과의 往復討論으로 栗谷學을 집대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사실 栗谷의 首弟子인 沙溪도 애초에는 龜峰의 首弟子이었으며 栗谷 弟子로 일컬어지는 樂峰 徐滄 (1558~1631), 守夢 鄭曄 (1563~1625), 靜坐窩 宋涌昌 (1561~1627)을 비롯하여 昇平府院君 金澯 (1571~1648), 靑川君 柳舜翼 (1559~1632) 東郭 姜燦 (1557~1603) 竹西 沈宗直, 許雨, 慎獨齋 金集 (1574~1656) 虛舟 金榮 (1580~1640) 崎翁 鄭弘演 (1582~1650) 등 大官達士들이 모두 그 문하를 거쳐간 사람들이었다.

龜峰 宋翼弼 : 龍溪 李榮元은 비록 栗谷에게 親炙受學할 기회는 없었지만 栗谷 逝去의 門下生이 되어 후에 仲父의 嫡姪이며 栗谷의 수제자인 沙溪의 繫緣으로 龜峰의 門下에 들어가 修學함으로써 栗谷學派의 一員이 된다. 아마 李潑 (1544~1589) 白惟讓 (1530~1589) 등 東人 謀士들이 龜峰을 西人의 謀主라 하여 이를 제거할 奇策으로 安塘의 후손을 부추겨 推奴訟을 벌이게 하여 龜峰의 祖母 甘丁의 자손들을 모두 推奴케 한 丙戌 (1586) 叙訟 이후에 龜峰이 사망으로 유리전전하며 피신하던 시기에 連山의 沙溪家에서 拜顔하였던 듯하다. 이후 東西 黨爭이 一進一退하는 亂局으로 접어들자 龜峰은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며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게 되니 문하 제자들을 착실하게 가르칠 수 없는 형편이어서 龍溪도 오래 나아가 배우지는 못하였던 듯한데 龜峰이 壬辰倭亂 (1592)으로 癸巳 (1593)년 9월에 熙川 講所에서 蒙恩放還된 다음부터는 항상 侍學하였던 듯 『龍溪遺稿』에 실려 있

는 「宋龜峰哀辭」에서 「다행히 난초 향기 내가 물려 받았구나. 여섯 해를 함께 하며 노닐었었지」(幸余與乎蘭馥兮, 共六秋而道遙。)라 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그의 집에 머무른 적이 있었던 모양이니 역시 哀辭에서 「매양 손을 잡고 서로 즐기며 林泉에서 늙어가기 기약 하시더니 어찌 이 말씀 쉽게 어기고 큰 바다 건너서 북쪽으로 가시던지. 이 이별도 이미 참기 어려웠었거늘 어찌 선생께서는 갑자기 가시나이까」(每交手而相歡兮, 期送老於林泉. 何斯言之易乖兮, 越六海而北遷. 比別離兮已難忍, 曷先生兮溘然。)라고 하여 熙川 謫所로 떠나는 스승과의 애절한 別離를 비롯한 生離死別의 정경을 묘사한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龜峰이 放逐된 뒤에는 곧 沙溪를 비롯한 同門들과 共論하고 林泉에서 같이 늙기로 한 스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龍溪는 龜峰一: 龍溪는 32세 나던 丙申年(1596)에 龜峰을 자신의 鄉里로 모셔온 族을 鳳山面馬橋里에 安敎시킨다. 지금은 禮山郡 鳳山面 馬橋里로 편입되었으나 당시에는 沔川 땅이어서 이웃 동네이면서도 縣이 다르던 馬羊村에 倉樞 金進謙가 마땅한 庄畝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빌어 스승의 一族을 安敎시킨 것이다. 이로 부터 朝夕으로 侍從하며 龜峰의 훈도를 받았으나 龜峰은 이곳에서 불과 3년을 지내고 宣祖 32년 己亥(1599) 8월 8일에 바로 그 馬羊村 寓舍에서 66세를 一期로 세상을 떠난다. 이에 龍溪는 同門 師友들과 힘을 합쳐 현재 唐津邑·元堂里인 唐津 北面 元堂里의 夫人 墓 곁에 장사지내는데 그 당시의 애통해하던 정경을 그 哀辭 末尾에서 가늠해 볼 수 있으니

龜峰의 哀辭 : 「슬프다. 선생의 가심이여. 吾道도 또한 망했구나. 돌아가실 때까지 쉬지 않으셨음에 더욱 自養하시던 바를 믿겠구나. 아득한 가운데 그 모습을 상상해 보나 산은 이미 무너졌거늘 어찌 우리를 수 있으랴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한번 소리쳐 불러 보나 마음만 찢어질 듯 멍멍하구나. 孤舟에 靈柩 실이 돌아가려들 벌써 가을 깊었고 탄 산에 장사지내면 精魄 불안하실까. 沔上의 새 터에 모시게 되니 참으로 눈을 마를 새 없네. 모두 말하기를 牛溪 栗谷 이미 가시고 松江도 뒤따르시어 淸明은 이미 땅으로 들고 도깨비 귀신들만 세상에 가득타하니 道가 진실로 땅 속에 있어 선생께서도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무엇이 즐거워 저 또한 이 세상에 살으리까. 슬피하다 하다 뒤따를 밖에. 눈물이 섬에 달아도 따를 수 없음에 이 哀辭를 지어 永訣하나이다.」라 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龜峰은 龍溪가 모셔온 지 겨우 3년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이 그가 龜峰에게서 받은 학문적 감화는 엄청난 것으로 그는 栗谷學의 實踐躬行이라는 뚜렷한 생활목표를 재확인하는 듯하다.

栗谷이 38세 : 그래서 栗谷이 38세 때 未出身人의 濠憲職 許通을 청하면서 「世道가 衰微해져서 못 선배들이 단지 科擧만이 發身하는 길이 되는 것처럼 알고 있으나 第一等人은 이에 좀스럽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과거로

사람을 쓰는 것은 딸기적인 풍습(叔季之習)이옵니다。」라고 한 주장에 크게 공감하여 科擧에 응할 생각을 더욱 멀리 하고 第一等人을 自處한다. 性理學에서 學者의 이상적 생활자세로 높이 평가하는 隱逸이 된 것이다.

儒敎의 治世觀은 본래 德治를 기본으로 하는 王道正治의 구현이다. 따라서 이를 감당할 治者는 반드시 먼저 자기 수양인 修己로부터 시작하여 남에게 그 본을 보이는 것으로 감화시켜 다스려야 된다고 한다. 이것이 소위 修己治人의 이상적 정치철학이다. 그러나 修己가 되지 않은 자는 治人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이에 유교의 학문 내용은 자연히 修己治人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역점을 두게 되고 그 當爲性을 宇宙論의인 입장에서 설명할 필요성 때문에 性理學이라는 고도의 정치철학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性理學은 宇宙萬物의 生成原理와 運行秩序를 理氣의 互相作用으로 파악하여 그 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이하려는 학문이다. 따라서 人性과 天理는 別個의 存在일 수가 없으므로 人性을 닦는 길이 곧 天理에 精通하는 첩경이라는 논리 아래 天理에 順應하게 하는 治人 즉 정치 그 자체의 근원을 修己 즉 자기 人性을 닦는데 두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性理學 이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治人보다는 修己 쪽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시작하여 성리학 이념을 尊信躬踐하던 士林을 중심으로 藏身修學하고 率先垂範하는 修己의 傾向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治人을 위하여 發身의 도구로 삼던 科擧 공부는 단지 수단에 불과할 뿐 목적이 아니라는 自覺에 의해 점차 이를 소홀히하려는 움직임은 보였으니 성급하게 성리학적 이상정치를 구현해 보려다 실패한 靜庵 趙光祖(1482~1519) 일파의 己卯名賢들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學行으로 천거하여 人才를 등용하는 賢良科의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일시 관철시켰던 것이 그런 정황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과거로 입신하여 大權을 장악하고 있던 보수세력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일시 좌절되는 듯하지만 性理學을 國是로 내걸고 있는 朝鮮王朝에서 그 이념을 충실하려는 士林의 활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비슬을 버리고: 이에 뛰어난 선비들 사이에서 과거를 외면하고 鄕理에 隱居하여 성리학연구에 몰두하며 제자를 양성하는데 주력을 기울이는 풍조가 近畿지방을 중심으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여 三南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花潭 徐敬德(1489~1546) 聽松 成守琛(1493~1564) 大谷 成運(1497~1579) 一齊 李恒(1499~1576) 南冥 曹植(1501~1572) 등이었다. 退溪 李滉(1501~1570)과 河西 金麟厚(1510~1560)는 文科에 급제하여 一時 비슬살이를 하지만 乙巳土綱(1545) 이후 비슬을 버리고 落鄕하여 역시 이들과 같은 생활자세로 평생을 一貫한다. 이들을 지역별로 나눠 보면 花潭은 開城 東門 밖에서, 聽松은 서울 北岳山下 紫霞洞과 坡州 牛溪에서, 大

谷은 忠淸北道 報恩 俗離山에서, 一齊는 全羅北道 泰仁에서, 南冥은 慶尙南道 山淸 德山洞 智異山麓에서, 退溪는 慶尙北道 安東 禮安에서, 河西는 全羅南道 長城에서, 土亭 李之燕(1517~1578)은 忠淸南道 保寧에서 각각 은거하였으므로 거의 三南 全域에 이들이 포진하였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隱逸尊崇思想 :
의 평배**

그 결과 성리학 연구의 심화와 더불어 그 이념의 底邊 확산이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개국 후 근 이백 년 동안 조정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民間에서 끝내 拂拭되지 않던 前代의 佛敎遺習이 급속하게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비록 賤民이라 할지라도 성리학 연구에 一家를 이루면 賢者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公州 雞籠山 孤靑峰 아래에서 隱居 講學하던 孤靑 徐起(1523~1591)는 靑林君 沈忠謙(1545~1594)의 私奴이었으나 土亭의 제자가 되어 성리학자가 되었으므로 贖良되어 士林先生이 되었고 龜峰 역시 근본이 安氏家 樛孫이나 士林尊丈으로 崇仰되었다. 新羅 이래로 貴賤에 대한 신분절서가 엄격하여 그 한계를 넘나드는 것이 거의 용납되지 않던 전통사회에서 이처럼 파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士林間에 평배해 있던 隱逸尊崇思想이 不知中에 이에 작용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한다. 이들은 신분상 科擧出入이 금지되어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隱逸이 되지 않을라야 않을 수도 없던 입장이었다.

이렇게 은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지자 비록 科擧로 立身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學者라 할지라도 기회만 있으면 물러나려는 태도를 보이었으나 朝鮮性理學을 집대성한 栗谷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비록 治人の 재목으로 천하가 인정하고 修己를 自負하여 破法의 경지에 이르는 一世宗匠이었지만 항상 隱逸에 대한 美望을 놓지 못하여 隱逸로 一貫하는 執友 牛溪 成渾(1535~1598)의 입장을 늘 부러워하고 있다.

**鄉約社會造成 :
으로 性理學
을 實踐**

그런데 이런 隱逸들이 단순히 산 속에 은거하여 世俗과 絕緣하고 學問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니었다. 修己의 과정으로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그 학문이 성숙하고 나면 오히려 그 성과를 현실에 반영하여 성리학적 이상사의 건설에 숭신하리 하였던 것이다. 이런 실천적인 움직임은 조선성리학의 기초를 다져 놓은 退溪로부터 비롯되어 그를 집대성한 栗谷에 이르러 본격화되니 鄉約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성리학적 이념지배를 절대화하고 社倉을 세워 지방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이 그것이다. (退溪는 1556년 12월에 56세로 禮安鄉約을 起草하고 栗谷은 1571년 6월 36세로 淸州鄉約을 改撰하고 42세 때인 1577년에는 海州 石潭에 은거할 뜻을 세우고 海州鄉約과 社倉規約를 完定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栗谷學을 추종하던 많은 성리학도들은 이런 隱逸이 되는 것을 士林의 이상으로 생각하였으나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은 아니었다. 성리학자로서의 확

고한 학문기반이 있어야 하고 세속적인 名利에 초탈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理念과 脫俗한 기상이 갖춰있어야 하며 一鄕을 善導할 德望이 구비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隱逸이라는 것은 가위 士林中の 士林인 最上等 士林이라 할 수 있는데 龍溪處士는 그 隱逸 중에서도 가장 은일담게 평생을 일관한 을곡 바로 다음 세대의 대표적인 은일이였다.

龍溪鄕莊에서: 일평생 한번도 구차스런 벼슬길에 나아갈 뜻을 비쳐본 적도없이 묵묵히 鄕里 高山에 묻혀 時俗을 바로잡고 士林을 保養하는 것으로 自負하니 당시 淸名을 날리던 豪傑之士로 그의 知遇 勸勉을 받지 않은 이가 거의 드물 정도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慷慨之士로 一代에 文名을 날리던 石洲 權輶 (1569~1612) 淸陰 金尙憲 (1570~1652) 東岳 李安訥 (1571~1637) 竹陰 趙希逸 (1575~1638) 疎庵 任叔英 (1576~1623) 등과는 莫逆神交를 맺어 詩酒로 唱酬交游함에 高山의 龍溪鄕莊에는 이들 名士들의 발길이 끊일 날이 없었다. 泰安 牛島는 壬辰 丁酉 兩次 倭亂에 亂軍이 미치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高山의 龍溪鄕莊도 亂禍를 받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었을 터이니 본디 巨富를 칭하던 龍溪집안의 경제력은 亂後에 상대적으로 더욱 비대해졌으리라 생각한다. 龍溪는 이러한 풍부한 재력을 심분 활용하여 私財로 社會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一鄕을 亂後의 經濟恐慌으로부터 구제할 뿐만 아니라 士林활동의 경제력 기반으로 다져나갔던 듯하니 그의 유교에 실려 있는

社稷說에 依하: 「社稷說」에서 그런 내용을 類推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적인 색채가 짙고 非純正朱子學的 요소가 강하던 小大北이 정권을 천단하던 宜祖 末年과 光海君시대의 保守反動的 정치 현실에 불만을 품은 粟谷系의 新進士林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 나가 결국 仁祖反正 (1623)을 성공시키는 듯하다.

仁祖反正의 據: 反正의 主役인 昇平府院君 金堯 (1571~1648)도 龍溪와 龜峰 門下에서 同門修學한 절친한 친구이고 反正의 先鋒이 된 많은 年少 士林을 門下에서 배출한 任疏庵은 그가 가장 신뢰하던 知己로 그의 長子 斗陽 (1595~1666)을 그에게 나아가 배우게 하여 仁祖反正의 선두에 서게 한 사실만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反正의 정신적 지주가 되면서 粟谷學으로 많은 제자를 길러내어 반정 후의 인재난에 대비하고 있던 沙溪 金長生은 가까운 姻戚일 뿐만 아니라 龜峰 門下에서 뜻을 같이 한 同門 知友이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仁祖는 龍溪를: 그래서 그가 59세 되는 癸亥年 (1623) 3월 13일에 仁祖反正이 六品職에 擢拜 성공하자 4월 8일에 조정에서는 學行있는 선비 즉 龍溪를 六品 한 左承旨를 追 品職에 擢拜한다. 그러나 龍溪는 이를 사용할 사이도 없이 5월 9일에 贈한다. 此外에 境界하니 世俗의 名利와는 始終 無關했던 龍溪의 最後로는 적절한 것이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龍溪에게 承政院 左承旨를 追贈하지만 이는 본래 龍

溪의 眼中에도 없던 세속의 누더기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마치 후드득 꽃잎 떨어지듯 아무 미련없이 깨끗이 돌아간 龍溪는 그가 평생 隱居 自適하던 故鄉 武陵村(紙谷里)에 禮法대로 安葬되지만 뒷날 斗陽이 鳳山郡守 平山府使 등을 지내면서 黃海道 江陰 助補에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고 獨子 之續이 無後로 先亡하자 吉地를 찾아 黃海道 金川 烽臺山下로 移葬하여가서 幽宅은 故鄉을 떠난다.

墓表를 尤菴宋: 그 후에 養孫 華相이 다시 牛峰 聖齊洞으로 遷葬하는데 墓表는 斗陽과 道義로 사귀던 尤菴 宋時烈(1607~1689)이 龍溪 故友 宋甬昌의 자제인 同春 宋澆吉(1606~1672)과 상의하여 짓는다.

龍溪는 初娶夫人 牛峰李氏 參奉 愆女에게서 一男一女를 얻고 後娶夫人 宜寧南氏 判官 楫 女에게서 一男一女를 얻는데 長子 斗陽은 原從一等功臣으로 벼슬이 星州牧使에 이르렀고 次子 鳳陽(1605~1668)은 伯父 長元에게 出系하여 崑崙(高山)에 터잡은 威平李氏의 宗孫이 된다. 鳳陽은 벼슬이 武班 명예직인 副司果에 이르렀고 그 후손들이 현재까지 古德面 夢谷里 崑崙에 集團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次子 之鑑은 龍溪의 從弟이며 沙溪의 姨從弟인 麗元의 獨子 長與府使 輝陽에게 入後하여 역시 그 계통을 이어 오고 있다.

龍溪의 外孫이: 龍溪의 血孫이 이와 같이 出系해 나간 쪽에서는 변성에 나갔는데 本孫 쪽에서는 孫子代에 絕孫되어 從弟 麗元의 曾孫 華相을 入後에 들인다. 長女는 土亭의 제자이자 조카인 吏判 鳴谷 李山甫(1539~1594)의 長孫 知足軒 李峻發(1588~1655)에게 출가하여 다만 獨子 商雨를 두나 東國眞體詩의 大成者인 槎川 李秉淵(1671~1751)과 같은 大詩人이 장차 曾孫으로 태어난다. 槎川은 이와 같이 曾祖母가 龍溪의 長女인데 다시 祖母 淸州韓氏마저 龍溪의 外孫女라서 龍溪의 血統을 이중으로 받는다. 따라서 龍溪의 詩脈이 槎川에 와서 끊어지게 된 연유를 결코 血緣과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次女는 右相 韓應寅(1554~1614)의 長孫이며 沙溪 金長生의 外孫인 尙州 使 韓壽遠(1602~1669)에게 출가하여 六子三女를 두는데 그 자손이 昌盛하여 公卿大官을 무수히 배출하는 餘慶을 누린다. 그 중에 長女는 姨從男兄인 李商雨에게 출가하여 槎川의 祖母가 되니 당시 禮學家門에서 이런 근친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조선사회에 대한 기존 관념이 크게 수정될 중대한 예증으로 들어져야 할 듯하다.

竹亭에서 文人: 龍溪는 巨富를 칭하는 증류가문에 태어나서 詩書畫는 물론 音律에 까지 博通하여 그로써 自娛自適하고 이에 능한 文士들과 즐겨 교류하였으므로 그 생활은 극도로 세련되었던 듯하니 남쪽에는 배를 띄울 만큼 큰 연못을 막아 연을 심고 동산에는 조출한 茅亭을 경영하고 들레에 대를 심어 竹亭이라 이름하고 여기서 文人墨客들과 詩酒書畫音律로 相歡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德山邑誌』古蹟條의 竹亭項에 보면 「縣의 북쪽 崑崙(高山村)에 있으니 연못 몇 개의 초가집으로 지극히 깨끗하다. 李春元(1571~1634)의 號는 九晚인데 어렸을 때 東

岳 李安訥 (1571 ~ 1637) 과 鶴林正 李慶胤 (1545 ~ 1611) 이 竹亭에서 모였었는데 九峯과 東岳은 모두 一代 文章이었고 鶴林正은 그림으로 세상에 이름났었다. 九峯이 鶴林正에게 대그림을 요청하여 벽에 가득하게 그려 놓자 九峯과 東岳은 각각 시 한 수씩을 지어 壁上에 써 놓으니 주옥같이 서로 비치어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三絶이라고 일컬었다. 정자는 지금 폐해졌고 詩 역시 기록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아마 鶴林正이 九峯 母親綾城具氏의 外七寸 조카로 壬辰倭亂 중에 이곳에 피란해 있을 때의 일이었던 모양이다. 이런 인연으로 그리 됐던지 龍溪의 長子 斗陽과 鶴林正의 末子 諱國 (1597 ~ 1673) 은 같이 淸江 李濟臣 (1536 ~ 1584) 의 손자 李厚基 (1573 ~ 1650) 의 따남에게 장가 들어 그 長次婿가 됨으로써 戚緣을 맺는데 이들 두 동서는 유난히 의초가 좋아 함께 仁祖反正에 앞장 서서 靖社原從一等功臣이 되었고 40 여 년간 學問과 詩書로 相從하면서 벼슬도 같이 牧使까지 이르렀었다. 따라서 二代에 걸쳐 四大 名畫家를 배출한 鶴林正 집안과의 이러한 밀착된 친분관계는 龍溪로 하여금 더욱 書畫에 대한 眼目を 높게 하였을 터이니 (秀岩山 아래 大德山 沐里에 鄉莊을 가지고 있어 歸鄉할 때마다 서로 往來하며 詩酒와 學藝로 흥금을 터놓던 사이인 竹陰 趙希逸의 文集인 『竹陰先生集』 卷一의 冒頭에 「취한 뒤에 붓을 휘둘러 子善의 벽화에 제함」 (醉後放筆題子善壁畫) 이라는 14 幅 壁畫의 題畫詩 14 首가 실려 있을 정도이다) 學藝에 博通한 風流處士 龍溪의 高士 風貌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에 그 從弟 李春元이 忠淸監司로 있을때 그 「祖考妣墓碣識」를 지으면서 그 伯父家의 從兄들을 列舉한 후에 「榮元이 가장 현명하고 文學이 있으니 또한 뒷날에 능히 大業을 이룰 사람이다」라고 하여 그 인물됨을 높여 평가하여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 기대대로 龍溪는 龜峰의 계자답게 隱逸處士로 高山 鄉里에 숨어 살면서 仁祖反正을 성공시키는 막중한 실력을 보이지 않게 발휘하고 그 反正이 성공하자 名利의 때를 한 점도 묻히지 않고 遽然히 세상을 버려 孤高淸淨한 隱逸像을 영원히 남기게 된다.

(崔完秀敎秀 潤松美術館研究室長)

九晚 李 春 元 (1571~1634)

仁祖反正의 棟樑之材와 벗

栗谷學波의 骨髄

李春元은 「德山邑誌」人物條에서 「宣廟朝에 登第하여 벼슬이 參判에 이르렀었는데 號는 九晚이고 文章으로 세상을 율렀으며 文集이 있다. 縣의 북쪽 高山面 紙谷에서 살았다」라고 간단하게 그 略傳이 소개되고 있다.

詩題가 天成으로 : 그런데 丙子胡亂(1636)후 反淸의 기치를 뚜렷하게 내걸고 곳곳이 루어졌다고 文人墨客들의 評을 받다

하계 國體를 지켜나간 賢相 白江 李敬輿(1585~1657)가 쓴 「九晚先生詩集序」(1656)에서는 「宣廟 右文之日에 當하여 宗工鉅匠이 각각 門戶를 세우고 서로 조금도 재능을 양보하지 않으려 하였었는데 公은 지위가 심히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홀로 詩에 能한 것으로 그 聲價를 드날리어 諸公의 위에 뛰어났았으니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數世가 지난 후에는 文人墨客들의 이름이 堙滅되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이 많은데 公의 이름은 지금에 이르러 더욱 드러나서 모두 宣廟時에 九晚公이 오하려 藝苑의 그것보다 더욱 많이 울조러지니 그 기치를 날리며 藝壇을 右左하던 사람에게 뒤진다고 하겠는가」라고 하여 詩詞에만 汨沒하던 文客이 아닌데도 詩題가 天成으로 이루어져서 한時代를 代表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라고 극찬하고 있다.

仁祖反正 前后的 : 이러한 평가는 當代의 文士들 사이에서도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었던 棟樑之材와 뜻을 같이 한 벗

듯 하니 九晚의 詩集에 登載된 唱酬詩의 主人公들은 모두 當代 일급 文士들이고 그들 文士들의 詩文集에도 역시 九晚과의 唱酬詩가 雅趣있는 詩話를 곁들이며 곳곳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唱酬詩와 詩話를 통해 보면 그와 특히 親했던 人物은 淸陰 金尙憲(1570~1652) 東岳 李安訥(1571~1637) 竹陰 趙希逸(1575~1638) 菴菴 任叔英(1576~1623) 北渚 金鑿(1571~1648) 八松 尹燾(1571~1639) 長洲 尹暉(1671~1644) 潘谷 金瑋(1580~1658) 運川 崔鳴吉(1586~1647) 등이었던 모양인데 이들은 모두 栗谷牛溪學派에 속하는 西人 精銳들로 장차 仁祖反正과 그 이후 時代를 主導에 나갈 棟樑之材들이었다. 그중에서 특히 李安訥, 金鑿, 尹暉, 尹燾은 同甲으로 癸丑獄事가 일어나기 직전인 癸丑 二月 下旬에 在朝同庚契를 만들어 親睦을 圖謀할 만큼 뜻을 같이 하는 가까운 벗들이었는데 李安訥은 그 養母가 燕山君 緡馬 綾陽尉 具文瓌의 孫女로 九晚의 母親과는 6寸 姊妹間이라서 8寸 兄弟의 戚分이 있는 위에 鄉莊이 沔川 滄澤里(現. 唐津郡 松山面 松石里)에 있어 世交가 있었던 까닭에 더욱 刎頭之義로 맺어지게 되었다.

九晚은 出仕하여 :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九晚의 從兄인 龍溪處士 李榮元(1565~

栗谷學派 政界進
출에 앞장

1623)의 知遇를 받던 英才들이었으니 이를 從兄弟들이 추구하던 理念世界가 同一하기 때문에 그 交友관계도 이처럼 同一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龍溪는 평생 出仕하지 않고 栗谷學派가 이상으로 여기던 隱逸의 길을 철저하게 걸어가면서 仁祖反正의 經濟的 精神的 背後가 되었던데 反하여, 九晚은 일찍 出仕하여 栗谷學派의 政界 進出에 앞장섰을 뿐만아니라 光海朝의 重臣으로 自派의 理念투쟁과 세력 신장을 조정에서 후원하는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龍溪가 隱逸로 一貫하여 大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九晚의 政治的 庇護가 보이지 않게 작용한 데서 힘입은 면이 크리라 생각된다.

九萬坪을 借音하: 九晚은 宣祖 4年(1571) 辛未 7月 15日에 漢城 薰陶坊 京第에서 九晚이라 自
號

初名을 信元 字를 立之라 하였었는데 44歲 나던 光海君 6年(1614)에 避忌할 일이 있어 春元으로 改名하고 字도 元吉로 고치었다 한다. 號는 九晚이니 洪範九疇을 상징하는 심오한 의미를 갖는 것이겠지만 紙谷里 앞에 전개되는 九萬坪을 借音하여 自號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비록 九晚이 京第에서 태어나기는 하지만 높을미에서 巨富를 누리며 一家를 총괄하던 祖母 全州崔氏가 諸孫 중에서 九晚을 宰相 제목으로 指目하고 첫머리자 바로 데려다가 스스로 키웠다 하니 九晚은 높을미 鄉邸 큰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던 모양이다. 여기서 6歲 연장이던 큰덕 막내 사촌형인 龍溪와 깊은 情으로 사귀게 되어 平生 同志로 지내게 되고 그 자신 이곳 鄉里를 못잊어 大官이 된 뒤에는 九萬 平野를 내려다 볼 수 있는 紙谷里에 別區의 鄉莊을 마련하고 틈틈이 歸鄉 閑居하였던 듯하다. 어떻게 九晚은 女中君子니 胸中에 國子監이 들어있느니 하는 칭송을 들은 祖母의 法度있는 訓導 아래 성장하면서 벌써 6歲에 눈사람을 보고 雪物贊을 지을 정도로 공부가 夙成하였다. 그래서 佔畢齋 金宗直(1431~1492) 門人으로 燕山朝 竹林七賢의 一人으로 꼽히던 篠巖 洪裕孫(1431~1529)의 子弟인 洪至誠에게 나아가 배우게 되는데 同門學徒로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 한다.

父喪으로 失意에: 그러나 10歲 때 巨富家의 末子이고 綾昌尉의 婿郎으로 장래가 촉망
서 祖母의 사랑과 期待로 心機一轉
九晚은 일시 失意와 悲歎 속에 빠져 들지만 祖母 崔氏의 극진한 사랑과 기대 속에서 心機一轉하여 오로지 학업에 열중하기로 작정하고 16歲 나던 해에는 前領相 思菴 朴淳(1523~1589)이 永平으로 歸鄉하자 이에 나아가 배우기 시작하여 學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朴思菴은 花潭 徐敬德(1489~1546)의 高弟로 醇正性理學의 勳達을 圖謀하여 栗谷學派를 키워낸 장본인이었으니 保守세력들이 栗谷學派를 공격할 때 「珥가 곧 渾이고, 渾이 곧 珥이니 終始 三人은 얼굴만 다를 뿐 마음은 하나입니다」라고 공격한 것으로 보아도 이를 짐

작할 수 있다.

栗谷學派의 骨體 : 그래서 栗谷 逝去(1584) 후에 李潑(1544~1589), 金字順(1540~1603) 鄭汝立(?~1589) 등이 창을 거꾸로 돌려 栗谷을 猛攻하게 되자 思菴은 오랫동안 지켜오던 領相 자리를 내어 놓고 領中 樞府事의 閑職에 물러나 있다가 그마저 내어 놓고 宣祖 19年(1586) 丙戌 8月에는 永平 白雲山으로 永歸 隱遁하였던 것이다. 이때 九晚은 永平으로 思菴을 찾아가 그 門下에 들어가는데 이는 아마 栗谷學派의 重鎮으로 思菴과 栗谷의 執友일 뿐만 아니라 장차 栗谷學派의 嫡傳을 이어가는 沙溪 金長生(1548~1631)의 父親인 黃岡 金繼輝(1526~1582)의 손아래 同婿이던 仲父 珩의 견고와 祖母의 주선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이었던 듯하다.

그와 함께 자라나서 서로 뜻이 가장 잘 통하던 伯父家의 從兄 龍溪도 이 이름에 沙溪家의 攀緣으로 龜峰 宋翼弼(1534~1599)의 문하에 들어가 栗谷學派의 骨體가 된다.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듯하니 明鑑있는 祖母의 배려로 隱逸의 기상이 있는 龍溪는 온 일일 수밖엔 없는 龜峰에게 나아가 배우게 하고 宰相의 기상이 있는 九晚은 장구한 기간 동안 相位를 누려온 思菴에게 나아가 배우게 한 까닭이었다고 생각된다.

宣祖의 下問에 仰對 : 어떻게 九晚은 思菴이 돌아가는 己丑年 7月 21日까지는 그 문하에서 修學하고 있는 듯한데 그 나이 19歲 때 이었다. 다음 20歲 되는 庚寅年에는 그 祖母가 그렇게도 원하던 進士試에 합격한다.

祖母의 養育恩에 心喪三年 이것을 武班으로만 家格을 유지해오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던 祖母 崔夫人의 소원을 諸孫 중 九晚이 明鑑에 어긋나지 않게 시원스럽게 풀어드린 것이다. 이에 崔夫人은 9月 23日에 80高齡으로 餘恨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九晚은 이 喪事로 말미암아 10月에 있는 增廣別試에는 응시하지 못하여 결국 進士로 壬辰倭亂을 맞게 된다. 그러나 벌써 進士試에서 그의 詩才는 크게 인정되어 高官이었던 月汀 尹根壽(1537~1616)가 그의 재능이 가장 뛰어난 것을 經筵에서 宣祖의 下問에 仰對할 정도이었다.

內補일대는 避亂 : 九晚이 祖母 崔夫人의 養育恩을 갚기 위하여 心喪 三年을 지키는 地로 經濟의 好況으로 鄭莊保全 內補일대는 避亂地의 經濟의 好況이라는 好機를 맞게 된다. 이에 九晚 一家는 鄭莊의 保全과 穀價의 騰貴에 의해 그 富力이 급격히 신장하여 갔으리라 생각된다. (崔完秀教授 濟松美術館研究室長)

富力으로 難民의 : 이런 富力을 바탕으로 그들 一家는 難民의 救恤과 名士의 保護 救恤과 名士保護 은 뜻있는 일을 하였던 듯하니 龍溪가 自費로 社倉을 운영한 것이나 宋龜峰을 모셔다 一族을 安頓시킨 사실 등이 이를 증명한다. 淸陰 金尙憲 이나 竹陰 趙希逸, 鶴林正, 李慶胤 (1545 ~ 1611) 등의 名士들이 이곳 늪을미에 來遊하는 것도 이즈음의 일이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九畹一門의 家聲은 縮紳間에 더욱 널리 전파되었을 것이고, 그 從兄弟들의 名望은 士林間에 錚錚하게 울려 퍼졌을 것이다.

26才에 庭試文科 : 이에 九畹은 26세 나는 宣祖 29年 (1596) 丙申의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바로 承文院 副正字 (從 9品)로부터 시작되는 벼슬길에 나아간다. 일년 사이에 博士 (正 7品)로 승진하고, 27세 때에는 丁酉 再亂을 만나 內殿이 遂安으로 蒙塵하여가자 分司注書 (正 7品)로 이에 扈從한다. 그 공로 때문인지 29세 나는 宣祖 32年 (1599) 己亥 3月 23日에는 陞六하여 戶曹佐郎 (正 6品)이 되고 (宣祖實錄 권 110) 이어서 4月 8日에는 明 遊擊將軍 茅國器의 接伴官으로 차출된다. 그러나 明將의 橫暴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九畹은 고의로 저들을 戰地에 먼저 가 기다리게 하고 자신은 稱病하고 늦게 떠나는 느긋한 여유를 보인다. (宣祖實錄 권 111) 8月 5日에는 刑曹佐郎으로 자리를 옮기고 (宣祖實錄 권 116) 9月 16日에는 다시 兵曹佐郎이 되었다가 (宣祖實錄 권 117) 11月 17日에는 海美縣監 (從 6品)으로 外輔되는데 (宣祖實錄 권 119) 이는 人事 담당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은 탓이었다고 한다.

左遷덕에 錦衣環 : 그러나 九畹은 오히려 이 左遷 덕에 錦衣環 鄉하는 기쁨을 맛보았으니 海美는 德山 바로 이웃 고을로 늪을미 鄉邸에서 50里 相距밖에 아니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縣監 在職中에 弘文錄에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고 (宣祖實錄 권 128) 32세 되는 宣祖 35年 (1602) 壬寅 6月 14日에는 임기도 다 채우지 않고 兵曹佐郎으로 復職되어 땀땀하게 上京한다. (宣祖實錄 권 151)

宦路에서 君子다 : 이 左遷은 도리어 九畹에게 轉禍爲福이 된 셈이었다.

운 行儀 宦路에 戀戀하여 비굴한 자세로 갖은 醜態을 연출하는 小人輩들의 肝膽을 서늘하게 하는 當당한 處身으로 가히 思慕의 學統을 이은 君子다운 行儀라 할만하였다. 이어 宣祖 36年 (1603) 癸卯 2月 21日에는 司諫院 正言 (正 6品)으로 자리를 옮기고 (宣祖實錄 권 159) 4月 17日에는 兵曹正郎 (正 5品)으로 승진하여 (宣祖實錄 권 161) 忠淸關 武御史로 또한번 環鄉할 기회를 갖는다.

드디어 34세 되는 宣祖 34세 되는 宣祖 37年 (1604) 12月 26日에는 成均館 司藝 (正 4品)로 大夫의 列에 오르고 (宣祖實錄 권 182) 知製教兼 春秋館 編修官으로 明宗實錄 再高官이 되어 그 공

으로 從 3 品 中調大夫가 된다. (明宗實錄 附錄)

그리고 다음해 宣祖 38 年(1605) 乙巳 6 月 20 日에는 35 세로 長興府使(從 3 品)가 되어 나가는데(宣祖實錄 권 188) 長興은 본래 武郡이라 土豪 強盛하고 文雅之風이 絕無한 위에 壬辰 丁酉 兩次亂을 겪고 나서 그 풍속이 매우 거칠어졌기 때문에 教化하기 힘든 곳이었다. 이에 九畹은 일변 스스로 執册 教授하여 文士를 기르고 일변 暴豪를 重罰로 다스리어 점차 鄉俗을 바로잡아 나가 文科에 급제하는 선비가 나오고 詩律을 爭誦 詠歌하는 풍습이 생겨나도록 教化에 힘쓴다. 그래서 九畹이 지은 詩에 曲을 붙인 懷州曲이라는 詩歌가 널리 愛唱되어 전승될 지경이었다.

心如玉, 貌如玉: 원래 九畹은 代代로 風流를 숭상하던 富貴家門에 生長하여 詩酒에 능하였고 白皙美姿顔에 雙眸炯炯한 美丈夫像을 타고난 性品이 介潔 淸秀하여 「마음이 玉같고, 생김이 玉같고, 詩가 玉같다」(心如玉, 貌如玉, 詩如玉)는 내용의 三玉으로 소문이 나서 사람마다 한번 보기를 원하였고 보기만 하면 이런듯 취하였다고 하니 그의 金玉之姿와 蘭雪之操 및 淸逸之詠은 당시 風流座에서 羨望의 的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그의 人品이 長興의 悖惡한 悍俗을 능히 文翰風流로 醇化시켜 나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政敵들에 依해: 그러나 이 시기에 強豪를 제압하기 爲해 몇몇 暴豪를 嚴罰한 사실을 政敵들에게 구실을 제공한 결과가 되어 끝내 九畹의 宦路에 餘殃을 안겨주니 因果의 定則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長興에서 2 年을 보낸 九畹은 37 세 나는 宣祖 40 年(1607) 丁未 6 月 22 日에 東萊府使(從 3 品)로 영전하나(宣祖實錄 권 212) 12 月 12 日에 司諫院에서 「東萊府使 李信元은 長興에 있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여 病이 되고 있었는데 東萊에 와서 더욱 술에 빠져 나라를 막는 중요한 곳에서 날마다 허송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하루도 비술에 들 수 없사옵습니다. 罷職을 명령하시기를 청하옵습니다」라는 상소를 올리어 곧 파직된다. 이는 長興에서 暴豪를 처단한 사실을 술주정으로 돌려 九畹을 罪인으로 만들려는 악랄한 계의가 숨겨진 政略의 人 誣告이었다. 이에 九畹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비술을 버리고 落鄉한다. 그러나 다음해인 宣祖 41 年(1608)에 宣祖가 薨去하고 光海君이 즉위하면서 小北과 大北의 정권교체가 있자 大北측에서 政局의 更化를 도모하고자 名望있는 在野人士들을 제기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九畹도 다시 出仕하여 江原監司(從 2 品)가 된다. (光海君日記 권 6)

九畹은 이해 7 月 16 日에 부임해 가는데 마침 水害 뒤딜이라 道路와 橋梁이 파괴되어 來往이 不通하는 지경이었다. 이에 九畹은 私費를 들여 이를 보수하고 守丞 中 貪虐하는 자를 파직시키는 등 매우 의

육적인 庶政을 펼치어 38세의 젊은이다운 폐기를 과시한다.

妙年監司라는 號 : 그래서 백성들은 妙年監司라는 愛稱으로 부를 만큼 믿고 따랐던 모양이나 역시 과도한 의욕으로 뒷생각없이 성급하게 파직시킨 貪官汚吏들이 作党成群하여 모함하였던 듯 두달 만인 9월 17일에 벌써 長興府使時에 濫刑으로 人名을 殺傷하였다는 前非를 들어 파직시키라는 司憲府 상소가 올려진다. (光海君日記 권 8)

母親逝去로 廬 : 이에 대해 光海君은 이미 推考를 받은 일이라 하여 허락치 않으니 歲 三年 이 일은 그대로 호지부지 끝나지만 다음해에 母夫人 綾城具氏가 위독하자 그 看病을 爲해 歸侍할 것을 陳疏하여 11월 3일에 同副承旨 (堂上正 3品)로 上京할 것이 허락됨으로써 (光海君日記 권 22) 江原監司職은 1년 남짓 지내고 그만 둔다. 다음 40세 되는 光海 2年 (1610) 庚戌 7월 6일에는 끝내 病中에 있던 具氏夫人이 逝去하여 九魄은 廬 三年을 마치는데 이 具氏夫人은 바로 中宗 第5女 淑靜翁主의 따님으로 中宗大王의 外孫女이며 宣祖의 內從妹에 해당하는 王室 至親이었다. 따라서 九略은 宣祖에게 內戚으로 5寸姪이 되고, 光海君 (1575~1641)과는 6寸 兄弟밖에 안되는 金枝玉葉이었으니 王室의 顯眷이 있을 것은 당연하였다. 具氏夫人의 三年喪이 끝나자 바로 壬子年 11월 27일에 左承旨로 승진 발탁하는 것만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光海君日記 권 59)

그런데 벌써 光海君 4年 (1612)인 이 壬子年 2월 13일부터 金直哉獄이 일어나서 栗谷學派인 西인들이 차차 당시 집권하고 있던 大北으로 부터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던 터이라 九魄의 입장을 매우 불안한 것이었다. 더구나 癸丑年 (1613) 4월 25일부터 터지기 시작한 癸丑獄事가 끝내 永昌大君에게까지 飛火되어 仁穆大妃의 친정 아버지인 延興府院君 金悌男 (1562~1613이 6월 1일에 賜死되고 永昌大君 璉 (1606~1614)는 8월 2일에 江華에 園籬安置되었다가 다음해 2월 10日 被殺되며 그 사이 宣祖로부터 永昌大君의 보호를 부탁받았던 소위 遺教七臣인 申欽 朴東亮, 徐滂, 韓浚謙, 韓應寅, 李廷龜를 비롯한 金長生, 金尙容, 金尙鸞, 黃愼, 沈光世, 趙希逸, 趙鶴韓, 崔起南 등 栗谷學派의 重鎮들이 모두 이 獄事에 연루되어 處罰을 받으니 九魄은 비록 兵曹參知 (9월 11日)와 左副承旨 (9월 16日)로 벼슬을 옮겨가며 朝廷에 남아 있었지만 (光海君日記 권 70)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九魄의 師友들이고, 活路를 찾아 誦獄을 構成하여 西人을 한 그룹안에 몰아넣게 한 장본인인 朴應暉는 바로 九魄의 스승 思菴 朴淳의 庶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九魄은 손수 朴應暉의 誦語上疏를 奉入해 들이면서도 언제든지 이 誦獄이 밝혀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同參承旨가 된 守夢 鄭繼 (1563~1625)과 함께 이 고통을 잘 참아내고 光海君 7年 (1615) 6월 5일에는 박용서 상소 奉入의

功으로 從2品 嘉善大夫의 加資를 받는 수모까지 당한다. (光海君日記 권 91) 그러나 6月 22日에 風玉軒 趙守倫(1555~1612)의 堂姪이며 門人인 止齊 趙浸(1592~1645)이 奸邪한 말에 眩惑되지 말고 大妃를 잘 奉養할 것을 청하는 上疏를 올리자 九暉은 다른 承旨들이 奉入치 않으려는 것을 물리치고 이를 奉入하여 大義를 闡明하게 하고(光海君日記 권 91) 7月 9日에 趙浸을 容讓하였다는 죄목으로 司憲府의 탄핵을 받고 6년 동안 몸담아 왔던 承政院을 下直한다. (光海君日記 권 92) 그리고 나서 잠시 分曹參判(從2品)을 지낸 다음 光海君 9年(1617)丁巳 3月 26일에는 公洪監司가 되어 錦衣環鄕한다. (光海君日記 권 113)

그런데 光海君 10年(1618)戊午 正月 3日에 右相 韓孝純(1543~1621)이 百官을 거느리고 仁穆大妃의 10大罪惡을 열거하며 廢黜할 것을 청하기 시작하여 大臣僚들의 廷講을 강요하기에까지 이르고 드디어 正月 28日에는 大妃의 號를 削去하고 다만 西官이라 부르며 百官의 朝講을 停止하고 減損節目을 정하여 進上品目を 제한하는 悖倫을 자행한다. (光海君日記 권 123)

三司 舍連啓: 이에 公洪監司로 있던 九暉은 이를 무시하고 進上 封物을 전대로 하
官爵을 削奪 당 고 그 單子에도 전처럼 昭聖貞懿大妃라는 徽號를 모두 써서 그대로 올
하다 리보냄으로써 이에 항거한다. 그러자 右承旨 李昌後가 4月 26日 탄
핵하기 시작하여 5月 25日에는 三司 舍連 連啓로 重罰을 청하니(光海君日記 권 128) 드디어 官爵을 削奪당한다. 그러나 워낙 王室
至親으로 光海君의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49세 되는 光海君 11년에는 知
敎事府事로 叙用되고 50세 되는 光海君 12年(1620)에는 聖節使가 되어
明나라에 다녀온다. 그리고 戊寅 辛酉年(1621)에는 迎慰詔使로 安州에 나
가는데 百祥樓 講會席上에서 風症을 얻어 左體가 偏廢되는 불행을 만난다. 이
로부터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詩酒로 自娛하며 餘生을 보내고저 한다.

師友들이 仁祖反: 그러나 53세 시에 그의 師友들이 仁祖反正을 일으켜 성공하고 出
正 成功하고 出 仕를 懇勸하자 九暉은 病人의 出仕가 구차스럽다 하여 끝내 이를 거
仕를 懇勸에 不應 절하고 治癒를 爲해 禁酒를 권하는 親知들에게는 「사람이 살기를 바
라는 것은 그 즐길 수 있음으로써인데 이제 이 벗들과 뜻을 펴는 것
을 끊어버리고 무엇을 기다리고자 하겠는가」라고 하며 항상 술을 마
시고 즐기는 豪放한 風流生活을 잃지 않았다.

九暉은 64才로: 이런 怡然한 자세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었던지 九暉은 64세
長逝 까지 壽를 누리고 仁祖 12年(1634)甲戌 7月 26日에 京第에서
長逝하여 廣州 西部 甘泉里 先塋에 장사지낸다. 近來에 廣州가 개발되
면서 九暉의 산소도 南楊州郡 和道面 琴南里로 移葬하였다 하는데 차
라리 그가 자라난 故鄕인 古德의 先塋으로 移葬해 모시었으면 더 좋았
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는 어디까지나 「德山邑誌」에 실린 古德
의 人物이니 그곳에서는 영원히 추앙될 것이기 때문이다.

九暉은 太宗 八女 昭淑翁主 駙馬인 海平君 尹延命의 玄孫 尹鑽의

따님인 尹氏夫人과의 사이에 5男3女를 두는데 長男은 早卒하고 次男 楚材는 進士로 벼슬이 判官에 이르렀으며 三男 楚老(1603~1678)는 伯父 敬元(1570~1639)에게 出承하여 進士로 벼슬이 敦寧都正에 이르렀고 四男 楚望 역시 進士로 判官에 이르렀으며 五男 楚奇(1613~1691)는 德行으로 세상의 추앙을 받았다.

長女는 領相 崔鳴吉(1586~1647)의 아우 史曹參判 柳下 崔惠吉(1591~1662)에게 出嫁하여 兄弟 領相인 崔錫鼎, 崔錫恒을 손자로 두었고, 次女는 隱逸로 掌書이 된 童士 尹舜舉(1596~1668)에게 出嫁하여 子孫대에 역시 大官進士를 많이 배출한다. 그리고 楚老의 外孫중에는 左相 遂庵 權尙夏(1641~1721)가 나오고 遠孫代에서는 錦城尉 朴明原(1725~1790) 紫霞 申紳(1769~1847)와 같은 名人들이 나와 그 外裔의 血統을 빛내 주니 咸平李門은 이로써 더욱 名門의 地位를 굳혀 나가게 되었다.

本孫쪽에서도 孫子 之翼(1625~1694)은 禮曹判書를 지내어 역시 「德山邑誌」에 실려 있고 曾孫代에서는 夢相(1667~1725)이 農巖 金昌協(1651~1708)의 門人으로 學行을 인정받으며 玄孫代에서는 潤身(1689~1748)이 右承旨를 지내고 裕身(1698~1766)이 都承旨 直提學을 지내는 등 名人達士가 계속 배출되어 名門으로의 家格을 잘 보존해 나간다. 그 후손들은 지금 全國에 散在되어 있지만 아직도 古德面 夢谷里 一帶 淵을미를 근거지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三玉遺孿이 지금도 故鄕의 하늘땅을 맴돌며 사라지지 않는 덕이라 하겠다.

- 參 考 文 獻: (參考文獻: 「明宗實錄」附錄,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李春元「九晚先生集」4권2책, 李榮元「龍溪遺稿」詠松林寄立之韻, 李安訥「東岳先生集」권10 奉聞李承旨立之信元... 爲同庚契, 寄立之·寄立之·次立之韻三首·曆立之韻, 李安訥「東岳先生集」권10 奉聞李承旨立之信元... 爲同庚契 凡左朝同, 比時萬 癸丑春二月下院, 金尙憲「清陰集」권8, 哭九晚李同樞立之 6首·권30 忠清道觀察使九晚李公墓銘銘并序, 권3 九晚挽詞·권5 又贈李立之, 朴淳「思菴先生文集」권5 附錄 行狀(李選撰)·諡狀(李恒福撰)·神道碑銘并序(宋時烈撰), 「咸平李氏咸城君派譜」권1·권7(1979), 「九晚公派譜」(1888) 「忠清道邑誌」41 德山縣 (崔完秀教授 潤松美術館研究室長)

誠實한 奉仕資勢

禮山郡守 朴 鍾 淳



尊敬하는 14萬 郡民여러분/
그리고 出郷人士 여러분!

戊辰年의 새아침을 맞아 먼저 希冀한 새해에 여러분의 家庭에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가득하심과 計劃하시는 모든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삼가 祝願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에는 온 郡民과 出郷人士 여러분들께서 積極的으로 聲援해 주신 德澤으로 보람있고 豐饒로운 郡政을 遂行할 수 있었음을 感謝드립니다.

새해 戊辰年에도 郡政을 보다 住民의 便益을 爲해 저희 600餘 公務員들은 오직 誠實한 奉仕姿勢로 和合과 團結로서 郡民의 生活便益을 爲하여 各其 負擔된 任務를 다하는데 最善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해의 主要事業으로는 無限橋 架設工事を 總事業費 35 億여원을 들여 推進할 計劃으로 이미 起工式을 가졌으며 역시 禮山邑 舟橋里 地域에 36 億여원을 투입하여 造成되는 禮山農工團地는 今年 5月末까지 完工할 計劃으로 있으며 完工後 34 個 業體가 入住하게 되면 郡勢의 劃期的인 發展基盤 施設이 展望되며, 農村의 所得增大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11億 6千 600 萬원의 水害復舊工事(新陽川 2億 2千 8百萬원, 炭防橋 1億원, 堤防復舊 3億 5千 900 萬원 등)의 着實한 마무리와 耕地整理 575 ha(掃橋신가지구 113 ha, 大連 및 光時지구 248 ha, 古德용리지구 142 ha, 新禮院지구 72 ha)에 37 億 4千 600 萬원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새마을 觀光團事業 및 가구기 事業으로 3 億 2千 萬원을 投資하며 觀光事業으로 禮唐貯水池 國民觀光地 開發事業을 작년어 이어 連次的으로 繼續하여 推進할 計劃이며 文化投資 事業으로 秋史紀念館 建立과 公設運動場도 計劃대로 推進中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一連의 施策이 보다더 앞찬 결실을 맺기 爲해서는 어느 몇 사람의 努力만으로는 充分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 郡民과 出郷人士 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아래 衆智를 모아주시고 힘을 합쳐 주실때 우리 禮山郡은 보다더 活氣있게 前進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췌록 傍觀보다는 參與를 批判보다는 激勵을 아끼지 마시고 郡政을 믿어 주시고 聲援해 주신다면 今年에는 그 어느때 보다 힘찬 跳躍을 할 수 있는 앞찬 郡政이 이룩 되리라 確信합니다.

끝으로 戊辰年 새해 여러분의 健勝을 빌며 더욱 많은 指導權達로 忠勤의 우리고장 禮山의 無限한 發展을 爲해 다같이 힘써 주실것을 當付드립니다.

質的向上으로 轉換

禮山教育長 李 英 靚



民主化의 熱氣 속에 새로운 前進의 터전을 굳건히 다진 丁卯年을 보내고, 希望찬 跳躍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戊辰年의 새 아침은 밝았습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歷史上 처음으로 國民 合意에 이룩된 憲法에 依해서 全國民의 直接 選舉에 依한 大統領을 選出함으로써 이땅에 民主主義를 定着시키는 새로운 發展의 전기를 마련하여 世界 속의 韓國國民의 矜持와 底力을 다시 한번 誇示한 重要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이같은 우리 國民의 民主的인 資質은 무엇보다도 그 동안 努力해 온 教育의 힘이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2 千年代를 내다보며 科學化, 機械化의 高度先進社會에 對備할 수 있는 사람의 能力 開發 向上을 爲해 行動, 思考, 能力, 知識 등을 높이는 教育을 集中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今年는 世界人의 平和의 祝祭인 '88 서울올림픽을 잘 치루어야 할 歷史的인 國家 大事를 目前에 두고 있는 重要한 한 해라고 생각할 때 더욱 더 무거운 責任을 느끼게 되고, 또한 教育 自治制 實現으로 教育의 自律化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教育史上 더 큰 의의를 갖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初·中等 教育의 內實化를 통한 質的向上이야말로 當面한 教育의 課題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經濟成長과 더불어 教育의 量的 成長面에서는 先進國 水準에 이르렀으나 質的인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水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教育은 質的으로 教育與件을 改善에 나가는 同時에 教育內容의 質的 向上과 教育 方法을 持續적으로 研究 改善해 나가고, 學校 運營의 合理化 및 教育自治制의 實現으로 教育의 內實化와 自律化를 定着시킴으로써 量的 成長에서 質向上으로의 轉換을 통해 創造의 人間 育成에 教育의 指標를 設定하고 모든 教育力을 이에 集中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兩大慶事 슬기롭게

禮山警察署長 李 鍾 元



尊敬하는 郡民여러분

瑞氣 充滿하고 希望에 넘치는 戊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家庭마다 萬福이 가득하시고 祈願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成就되시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건데 참으로 激動과 試練의 한해였습니다. 6. 29 宣言 以後 民主化의 물결속에서 左傾學生들과 不法在野 勢力들이 連繫하여 連日 不法示威과 亂動 破壞로서 社會混亂을 造成하므로서 國基마저 危殆롭게 하였었고, 全國적으로 擴散되었던 勞使紛糾로 因하여 經濟的 危機를 맞았었으며, 雪上加霜으로 近來頻例없는 大水災까지 겹쳐서 많은 人命財產의 損失을 갖어온 큰 試練을 겪었습니다.

특히 얼마전에는 歷史的 國家大事인 大統領選舉를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치루어 넘으셔서 온 세계에 우리 國民의 成熟된 民主力量을 遺憾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試練이 많은 가운데서도 管内治安을 平穩한 가운데 維持할수 있었던 것은 郡民 여러분께서 저의 警察을 깊이 이해하시고 理解하시고 積極적으로 協助하여 주시고 精誠어린 聲援을 보내주신 結果라고 생각하며 眞心으로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今年은 아주 뜻 깊은 主要한 해입니다. 2월에는 平和的 政府移壤이 있고 가을에는 世界올림픽 大祝典이 서울에서 열릴 것입니다. 온 國民은 國運이 걸린 이 大會를 올림픽 史上 가장 盛大하고 훌륭하게 치루어 내기 爲하여 모든 努力과 精誠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北傀 金日成 徒黨은 이 時間에도 南侵을 爲한 軍事力 強化에 狂奔하고 있으며 올림픽 大會를 妨害하기 爲하여 갖가지 兇計를 꾸미는등 南侵挑發에 血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直視하고 더욱 굳게 團結하고 反共精神을 透徹히 하여 北傀의 어떠한 挑發도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國民이 安定속에 和合團結하고 더욱 熱心히 努力하여 期必로 繁榮된 先進祖國을 이룩합니다.

湖西銀行 文化論壇 大講演會

設立精神 살려 建物保存 強調

演士 高承濟·金重業·崔完秀 教授



내고장 문화논단이 11월 13일 예산문화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일찌기 민족경제의 독립이 곧 나라의 독립임을 자각하여 최초로 근대적인 지방 금융기관이었던 호서은행을 고장에다 설립한 우리 예산지역 선인들의 우국과 독립의 뜻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연사로는 고 승제 경제학박사 「호서은행과 충청문화」, 김 중업교수 「예산호서은행 본점 건축에 관하여」, 최 완수교수 「예산지방의 문화제」가 초청되어 대 강연회를 개최하여 관심있고 뜻을 같이 할 인사들

이 참가하여 내고장 호서은행의 설립정신과 당시 행세화강되었던 실적과 나라독립과 경제 독립정신을 다시 정립해 보았다. 특히 본점 건물이었던 현 충청은행 예산지점은 당시의 고장선인들의 정신적 표상으로나 문화제 호서의 가치로 보나 꼭 보존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일치하였다.

市街中心三角코너서 當當이 버터

重厚하고 比例感이 調和로운 建物

건축은 역사의 거울입니다.

아득한 옛부터 오늘까지 지구 곳곳에 이루어 놓은 건축이 당시 살아 숨쉬는 조상들의 삶의 뚜렷한 흔적들을 알뜰히 수 놓아 당시의 문화의 정확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건축물을 국보라고 하고 보물이라고 하고 지방문화재라고도 하며 조상들의 슬기와 정신을 길이 빛내어 왔습니다.

이러한 건축문화는 각기 다른 민족들의 뚜렷한 자화상들이어서 우리들의 건축문화는 오늘날의 우리들을 이곳에 있게 한 이정표이자 증거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각 민족들이 조상이 남긴 값어치 있는 건축물이 있는 그 자리에 보존하여 으뜸가는 예술작품으로 국위를 자랑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네스코문화현장에 건축이란 그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그치지 않고 전 인류의 가장 소중한 길이 남겨야 할 금자탑이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뿌리가 깊이 내려 전통을 가꾸어 온 산 증거물이 건축문화이며 이는 산수가 다르고 삶의 형태가 다르기에 각양각색의 뚜렷한 문화유산을 정착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전통은 국토조건과 기상조건과 한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이로인하여 빚어진 독특한 조형감각의 성과로서 뚜렷한 건축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각 나라의 전통이란 이웃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서 시대에 따라 모습들이 바뀌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동양권 국가들의 건축문화가 각기 다르면서도 그속에 도도히 흐르는 자연과의 오묘한 조화는 서구의 건축문화와는 판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은 동양과 서양을 선명하게 구분지어 온 사상과 삶의 어쩔수 없는 전통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근세에 접어들면서 서구의 식민지정책의 강한 밑물이 닦쳐와 서구 문화의 영향력이 커져 제대로 길러지지 못한 채 건축문화에도 큰 변화를 갖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세기초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면서 건축전통에 많은 변화를 강요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네들이 선별하여 길러가며 우리의 전통에 새로운 양분으로 배양하기에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산의 호서은행본점도 아무런인 1922년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중후하고 비례감각이 조화로운 이 건축물이 예산에 세워진 당시에는 세인의 놀라움을 사기에 충분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시 중심의 삼각코너에 버티고 있는 모습이 당당하고 으쓱합니다.

가히 예산의 뚜렷한 건축문화재로서의 존재가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건축물이 그리 흔치않은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축물은 꼭 보존해야하리라 믿어집니다.

선별된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며 살아 숨쉬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이 지방의 개화기 건축의 심볼이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축 문화제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귀해지는 존재입니다. 예산문화의 찬연한 전통속에 길이 남겨 금세기초의 산 증거로서 숨쉬게하여 사는 이에게 긍지를 찾는 이에게 즐거움을 준다 것은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예산의 빛나는 전통문화가 또하나의 지방문화제로서의 호서은행본질을 더함으로써 얻는 가치는 금융사에 뚜렷한 이정표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들은 60년대 말부터 밀어닥친 고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비문화적인 황폐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은 근세문화제들이 자취를 감추었는지 예통스럽고 분할 따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워져버린 유형문화제들을 생각하면 한뼘한 가슴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리라는 뼈저린 죄책감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지방의 뚜렷한 특색들이 송두리채 지워지는 비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계가 문화제보존운동에 총 걸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산 역사의 증거물인 유형문화제들을 말살해 소중한 문화를 황폐화하면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문화란 국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민족의 뿌리이며 빛나는 내일을 창조하는 원동력을 다시금 명심해야 합니다.

(金重業 教授 前文化財委員)

禮山地方의 文化性格과 文化遺産

韓半島의 精氣를 한데 모아 중국대륙을 향해 불끈 힘주어 뿜내듯 서해로 돌출한 것이 泰安半島이다. 이를 만들기 爲해 脊梁山脈인 太白山脈의 要處 五台山으로 부터 갈라져 나온 車嶺山脈이 江原道를 지나 京畿 忠清 兩道の 境界를 이루면서 꿈틀거리며 西南쪽으로 내려오다가 天安부근에서 부터는 高峻한 山勢를 보이며 忠清南道를 貫通하여 保寧 바닷가에 일단 멈춘 다음 돌연히 一脈을 서북쪽으로 치우려 伽鄴山 連峰을 이루어 놓는다. 그래서 伽鄴山 連峰이 남북으로 길게 우뚝 솟아 바다를 제압하면서 무수한 落脈을 사방으로 뻗어내려 복잡한 巒曲을

만들어내니 牙山鰲, 唐津鰲, 瑞山鰲, 加露林鰲, 淺水鰲 등이 그런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만곡들은 대체로 伽耶山 連峰과 차령산맥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이 습수되어 흘러들어오는 크고 작은 시내와 연결되어 있고, 이곳 西海는 潮汐干滿의 差가 크기 때문에 바닷물을 내륙 깊숙히까지 밀어넣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伽耶山 주변의 泰安半島 일대를 內浦라 부르는데 이 內浦一帶은 우리나라에서 몇제 안가는 광활한 平野地帶로 農耕에 적당하여 良質의 穀物을 多量 產出할 뿐만 아니라 伽耶山이 樹木의 生長에 적합한 土山이고, 주변 바다는 모두 鰲홀이 완만하게 수십리 뻗친 대륙붕이므로 魚鹽柴水가 고루 갖춰져서 海路에 依한 交通의 편의와 더불어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지역이었으므로 일찍부터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으니 新石器時代부터 그 문화유적을 곳곳에 남겨놓고 있다.

특히 海洋세력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던 百濟시대에는 이곳의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어 국제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는 듯한데 百濟가 漢江유역과 江華鰲 일대의 해상통치권을 상실하고 나서 錦江유역으로 밀려나는 文周王(475~476)대 이후로는 거의 百濟 해상활동의 전진기지화하는 느낌이 짙다. 그래서 한강 船團의 괴멸로 일시 海權을 고구려에게 빼앗겼다가 이를 다시 찾아 해상활동을 재개함으로써 海洋王國으로의 체면을 되살리던 武寧王 21年(521)이후에 이곳의 번영과 발전을 눈부신 것이었으니 그 결과 聖王(523~553)대에는 <泰安磨崖三尊佛>이 가로림만 깊숙히 물길 좋은 泰安의 嶺山 白華山上에 조성될 수 있었고 威德王(554~597)대에 이르러서는 보다더 세련된 <瑞山磨崖三尊佛>을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武王(600~640)대에 이르면 泰安半島의 가장 東쪽에서 北流하는 제일 큰 하천인 插橋川의 西北쪽 地流인 大川 上流에 <禪山四面佛>을 造成한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미 南쪽 淺水鰲으로 흘러드는 臥龍川 上流에 修德寺가 지어져서 慧順이라는 大德이 이곳에 駐錫하여 法華經과 三論學으로 명성을 떨쳤으니 이 사실은 중국에까지 알려져 讀高僧傳에도 실려 있다.

그런데 百濟 부흥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던 任尊城이 插橋川의 南쪽 地流인 無限川 上流에 位置하여 禪山四面佛과 불과 오십여 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면 百濟 말기로 갈수록 泰安半島의 文化中心은 점점 내륙 쪽으로 옮겨져 插橋川 유역이 中心을 이루어갔던 것 같다. 이는 아마 隋唐과의 교역 및 고구려와의 우호관계가 北쪽 通路의 必要性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떻든 이로부터 禪山은 內浦文化의 中心地가 되어 統一新羅時代를 거치면서 對唐교역의 窓口役割을 담당하게 되니 후삼국을 일어나서 天下를 다투게 되자 이곳의 爭取가 대세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어 後百濟

藍堂이 이곳에서 高麗 太祖에게 參政함으로써 統一의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 그래서 高麗 太祖는 그의 결정적인 勝機를 잡은 이 地域을 禮遇하기 爲해 禮山이라는 雅名을 내려주게 되니 이로부터 烏山이 禮山으로 바뀌게 된다. 이후 高麗 顯宗 3年(1012)에 지금 洪城에 運州牧이 설치되자 內浦의 政治文化 中心이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禮山은 그의 屬順으로 過去의 繁榮을 잃게 되지만 여전히 運州牧의 海運 關門으로 穀物의 積산과 교역 등을 통한 經濟的인 繁榮을 지속적으로 누려 長項線 開通에 依한 物資輸送 수단의 變化에 따른 海運의 쇠퇴기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탱하게 된다. 그래서 禮山지방을 이룬 經濟의 부력을 바탕으로 水準 높은 文化活動을 끊임없이 展開 하였으니 佛敎를 國敎로 하던 高麗時代에는 德山 伽耶洞에 이미 新羅時代부터 있던 古刹인 伽耶寺를 크게 重葺하여 雲第金塔이라는 稀有한 文化遺産을 남기고 對面에 大小寺庵을 세워 石塔과 佛像을 만들었으며 儒敎王國인 朝鮮時代에 이르러서는 巨儒 能文 名筆 忠義之士의 배출이 끊임없이 自庵 金棘(1488~1534) 靜存齋 李湛(1510~1574) 龍溪 李榮元(1565~1623) 九畹 李春元(1571~1634) 韓川君 李義培(1576~1637) 崙谷 趙克善(1595~1658) 屏溪 尹鳳九(1683~1767) 石門 尹鳳五(1688~1770) 木齊 李森煥(1729~1813) 錦帶 李家煥(1742~1801) 秋史 金正善(1786~1856) 韋堂 金文濟(1846~1931) 修堂 李南珪(1855~1907) 一薦 申鉉商(1905~1950) 梅軒 尹奉吉(1908~1932) 등이 뒤를 이어 출현하여 그들이 남긴 文化遺産이 도처에 散在한다. 그러나 日帝 36年間の 전통文化 抹殺정책과 6·25 사변에 依한 徹저한 파괴 및 이후 40餘年間 서구일변도 敎育에 따른 전통문화의 放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遺産의 대부분이 멸실 인물 되고 말았다. 다행히 근자에 이르러 전통문화에 對한 인식의 새로와 지기 시작하여 文化遺産의 귀중성을 깨달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우리 禮山人들은 이에 앞장서서 內浦文化를 주도해나갔던 선조들의 文化的 自矜心을 되살려내는 運動의 일환으로 文化遺産을 철저히 保護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겠다. 그것제 作業의 하나로 日帝 초기 內浦經濟의 主導의 役割을 담당하기 爲해 순수 民族資本으로 設立되었던 최초의 민간은행인 湖西銀行의 建物을 원형대로 保存하여 千百代 후손에게 전해주는 일에 온 郡民이 一心專力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 建物을 보고 다시 禮山을 內浦經濟의 中心地로 가꿔나갈 꿈을 키우게 해주어 過去의 영광을 되찾도록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崔完秀教授 潤松美術館研究室長)

民族性 잃어가는듯

禮山寫友會長 신 현 성



지난해는 유난히도 바쁜일정 속에서 지내온 것 같다. 특히 온 국민의 뜻으로 선택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매우 뜻깊은 한해의 마무리라 생각하고 있다. 이에 또한 신년에 거는 기대도 크다. 특히 언론 출판의 자유화가 활성화됨은 우리 사진인으로서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라 하겠다. 사진이란 진실성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인류의 역사적 시대성을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가식이나 꾸밈한 자기 주관 이 없는 사진은 그 의미가 없다고 본다.

오늘날 고도화 되어가는 산업사회의 경쟁속에서 위대하고 순수했던 우리의 민족성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마치 물질적인 소유가 그사람의 인격과 품행이 결양원양 평가되며 못가진자는 존재의 의미조차 찾기 어려운 풍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슬픔이 아닌가 싶다. 우리 모두는 사진으로 인하여 서민의 표정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진의 매력은 무한한 것 일지도 모른다. 끝으로 우리고장 예산에서도 많은 사진인이 참여하여 역사와 사회속에서 소외된 것을 찾아 기록하고 문향의 고장, 예절의 고장을 지킬수 있으면 하는 우리 모든 회원의 바램인 것이다.

水準높은 합창團으로 努力

梅軒合唱團長 명 안 재



노래는 즐겁다고 했다. 아니 즐겁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즐겁게 부르는 노래속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다.

혼자 있을때 독창으로, 둘이 모이면 두엿으로, 셋이 모이면 트리오 넷이 모이면 중창으로 그이상으로 모이고 모여 합창이 된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입을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것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좋은 화음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하나된 마음이 있고 울려퍼지는 그옥한 화음속에 포근히 감싸는 따뜻한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한마음

화가가 그림 그리기를 사랑하듯이, 시인이 시를 짓는데 기쁨을 느끼듯이 우리는 노래 부르기를 사랑하고 더욱더 예산군민의 가가호호에 사랑의 노래가 멀리 멀리 울려 퍼지도록 부를거다. 그리고 더욱더 수준있는 합창단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겠다고 이세해를 맞아 다짐한다.

새 人間像이 되야

禮山時友會長 李 起 鳳



禮節을 崇拜하고, 忠孝에 高節을 지키 온 高堂에서 現代를 살아가는 우리는 옛것을 지키고 새것을 創出하는 새人間像으로 變해가야 할 줄 믿는다.

내 나이 83 才로 뒤돌아보면 별다른 한일이 없이 느껴지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信念으로 옛것을 지킨다는 자세로 世해를 맞이한다.

지난해는 自庵 金絳先生을 기리는 추모 時調觀唱大會를 主管한 바, 올 戊辰年은 秋史(金正喜)先生을 추모하는 時調觀唱大會를 꿈꾸어 본다.

진짜백이 터전으로

극단 소란 회장 민 동 봉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만남” 그러나 그 많은 만남중 계산에 의한 의식적인 만남이나 강제성을 띤 인위적인 만남이 아닌 순수한 목적의식의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진 만남속에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젊음들.

절망할 지언정 파멸하지 않을 젊음들이 눈빛과 호흡을 함께 하며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그 공통성에 대한 정열로 박현숙 작 「빛은 멀어도」란 작품과 문화원 주최 지분촌토속놀이 행사에서 우리 고장의 실화인 “의좋은 형제”를 마당극으로 무대를 올렸습니다. 예산에서 연극을 해? 이런 무의 자기비하적인 놀라움을 거두고 예산의 젊은이들의 능동적인 참여의식과 하고자하는 노력의 시도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외향을 보고 내면까지 판단해 버리는 젊음들을 외면할 수 있는 진짜백이들이 빈터에 한그루의 눈부신 나무를 심기 위하여, 건고한 예산연극 인구 확장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심히 땅흔리며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木工藝人口 擴大할터

禮山木工藝同人會長 金 啓 煥



수년에 이어 저희 목공예 회원들이 그동안 언마한 작품들을 미숙하나마 또다시 선보이게 된것도 예산문화원의 후원이다.

앞으로 저희들은 고유의 전통목공예의 맥을 이어 현대감각을 살리면서 예술성의 고장을 기하는 한편 목공예인구의 저변 확대에도 힘을 기우리고자 한다.

아무쪼록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뜻에서 틈을 내셔서 많이 왕림하여 발표회때마다 많은 지도를 바란다.

내실있는 문화단체로 발전

琢磨讀書會 會長 권 영 혜



건전한 독서기풍을 조성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생활화와 예산군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회의를 통한 여성의 교양과 지위향상 여가선용 나아가 사회발전을 목적으로 창단된지 올해로 8년째로 접어들다.

그동안 문학강좌, 세미나 자작품발표 등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고 야유회, 체육대회등으로 건강을 지키며 또한 위문도 가고 시화전도 열고 시집도 내면서 많은분들의 호응과 관심에 보답도 하며 나날이 알차게 성장해가고 있어 즐겁기도 하지만 몇년씩 함께 고생하고 노력하던 회원들이 결혼이나 전출등으로 떠나가고 그 빈 공간을 새 회원으로 보충시키려면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점이 안타까울때로는 속상하기도 하다.

그러나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답하고 또 이고장에 더욱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내실있는 문화단체로 성장하려면 늘 노력하고 공부하는 탁마인이 되어 뿌듯한 긍지속에 깨어있는 규수의 모습으로 남아야겠다.

丁卯새해 新年交禮會



정묘년 새해를 맞아 문화원에서는 1월 5일 11시부터 신년 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각 기관 단체장들을 비롯한 사회인사 150여 분이 참석하여 서로 새해를 맞아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敬老孝親 實踐手記施賞

施賞 受賞 } 한자리 懇談會 { 指導 審査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경로 효친 사상을 양양사업으로 초·중·고학생들 대상으로 경로효친 실천수기를 공모하고, 지난 12월 3일 3시에 시상식을 가졌다.

이 영북 교육장을 비롯하여 시상자와 수상자 지도교사 심사위원이 자리를 같이 하여 대화할 수 있는 간담

17년도경로효친사상선양실천수기수상회



회의 형식으로 마련된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생을 입상시킨 지도교사 전원에게 지도교사상 및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날의 좌담에서는 지도교사와 심사위원과 학생들의 작품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었다.

경로효친사상선양실천수기수상회



경로효친수기 입선자명단

초 등 부

상 명	학 교 명	성 명	제 목
금 상	금오국교 5-3	박인오	할머니의 생신날
은 상	신례원국교 6-4	박안수	우리 할아버지
"	중앙국교 6-4	이대용	할머니와 엄마
동 상	대륜국교 6-1	김미영	우리 할머니 최고
"	예산국교 6-4	박수진	할머니의 사랑
"	" 6-4	하혜한	말보다 행동이 먼저
장려상	" 5-4	강예진	하늘나라 할머니를 생각하며
"	" 6-5	박찬희	작 은 선 물
"	" 6-3	임정수	할머니의 따뜻한 정
"	" 5-2	이은영	생 신 선 물

중 등 부

은 상	예산여중	김윤정	은희의 효행상
동 상	덕산중	김진형	목발 할머니
장려상	덕산중	강미라	효의 꽃
"	"	최형민	하루동안의 성장

고 등 부

은 상	중앙고	박종국	어떤 할머니의 모습
동 상	"	이석원	문학으로 승화된 효심
장려상	예산여상	권순희	할머니의 죽음

遺蹟地 · 오솔길 걷기運動

郡内 中學 2年生 80名 參與

지난 7월 21일 군내 12개 중학교 2학년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복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선조와 명현의 정신이 숨쉬고 있는 유적지 순례 및 선인들이 밟았던 오솔길 걷기 행사를 가졌었다. 역로는 남언군묘→충장공묘→마에삼존불→사면석불을 순수한 도보로써 돌아보고 신양중학교 교실에서 합숙하면서 최규봉신양중학교 교장선생님의 「독도법 강의」와 매현합창단 단장인 명 안재양의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즐겁게 단세생활을 이룩해 시키는 가운데 하루밤을 보냈으며 당초 계획했던 추사고택 순례 일정은 복우천 관계로 인해 실내에서 문화원장의 설명으로 대신했다.



내고장文化 찾자는 『뿌리』

男女高校生 첫 修練大會

지난 6월 6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유적지를 돌아보고 내고장 역사를 올바르게 찾아 봄으로서 조상들의 뿌리를 찾아보자는 목적으로 뜻을 같이한 남·녀교생 15명으로 구성된바 현재의 회원은 25명인 뿌리모임은 8월 12일~14일까지(2박3일)간의 첫 수련대회를 실시 하였다.

문화원 주선과 송총무의 인솔로 이루어진 이 수련회는 가야산 상왕산 하곡 용현리 계곡을 거점으로 남언군묘→서산 마에삼존불→충장공묘→사면석불 등의 유적지를 돌아보고 야간에는 토론 및 캠프화이어 등을 실시함과 문화원장의 내고장 문화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지식과 또한 예행심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유적지 순례시 삼희관광에서는 차량 지원을 해주었다.



冬節青少年文化講座

300餘名 中學生 參與

청소년 문화강좌가 2월 10일~2월 15일까지 6일간
예산문화원 회의실에서 마련 되었다.

청소년들에게 내고장 지역인사 및 학자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대화를 통한 삶의 지혜와 올바른 인간
성·국가관·애향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행사는
30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

더우기 우리 고장의 자랑이요, 선현들의 정신이 숨쉬
고 있는 수덕사와 추사고택 사면석불 남연군묘를 버스편으로 돌아봄
으로써 체험을 통한 내고장에 대한 긍지를 새롭게 하기도 하였다.



遺蹟地 巡禮로 實感

1週間 青少年 文化講座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하여 5월 25일~5월 31일
까지 1주일간 군내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강좌를 실시하였다.

문화원의 해마다의 역점 사업의 하나로서 청소년들에
게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 및 애향심을 심어주는 정신
순화 사업이다.

매일 두분씩 초청강사의 강의와 대화를 통해 학생들
에게 고장문화 각 부문에 걸쳐 일깨워 준다.

마지막날인 5월 31일에는 임존성 유적지 순례로 우리나라 고대사
회의 백제역사와 열킨 내고장 문화에 대한 긍지를 새롭게 해주고 있
었다.

“빛은 멀어도” 公演

劇團 소란 定期發表會

예산연극 모임인 극단소란은 지난 5월 2일 신라예식장에서 「빛은 멀어도」라는 작품으로 제 2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이 작품은 박 현숙씨의 회갑기념 희곡 선집인 「그 찬란한 유산」에 수록된 것으로서 현대 젊은이들이 겪는 이른 사랑의 갈등을 통해 세인들에게 사랑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제기해 주고 있다. 작년 창단공연에 이어 모든 약조건 속에서 철야연습으로 이루어낸 이 두번째 공연은 열성으로 결집된 소란으로서는 뜻깊은 공연이었기에 박수와 더불어 앞으로의 발전을 더욱 기대해 본다.



水準向上된 作品展

禮山 寫友會 第6回 發表會



렌즈를 통하여 미를 추구해오는 예산사우회에서는 한 해의 작품을 모아 여섯번째의 작품발표회를 가졌다.

1980년 11월에 창단된 예산사우회는 15명의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평소 직장과 가정에 충실하면서 주말등을 이용 틈틈히 시간을 내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물들을 사진기의 렌즈를 통해 높은 사진예술을 창조해 내기에 힘을 기우려 온 결실인 제 6회 작품전을 12월 29일 까지 나흘간 문화원 전시실에서 가졌다.

傳統을 繼承한 作品展

禮山木工藝同人會



제 7회 전통공예 작품전이 10월 26일~10월 31일 까지 6일간에 걸쳐 문화원전시실에서 가졌었다.

'81년 예산 목공예인과 토공예인으로 동인회를 조직한 이후 해마다 동인전을 열고 있는 동인회는 수적으로 많지 않은 회원들이지만 나무와 گل, 흙과 불로서 옛조상들의 고아한 맛을 그대로 계현해낸 절묘한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서 이 목공예동인회 회원들이 묵묵히 선인들의 목공예술의 전통을 계승해가고

있는 자세와 신승이 높아가고 있다.

道合唱競演서 金賞

梅軒合唱團

매현 합창단이 지난 8월 16일 17시 10분에 방영된 MBC 청소년 가곡무대에 김 규란곡 「남들과 오늘」이라는 곡 두곡을 불러 T·V에 찬조출연, 지난 '87년 10월 22일에 있는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신고산 타령」을 불러 21개 팀중에서 금상(2등)을 수상하여 고장 규수들의 음악수준을 과시하였다.



한편 혼성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매현합창단 38명과 각 교회성가대원 남성 22명으로 구성하여 10월 10일부터 행연습에 들어가 열심히 노력한 성과를 얻은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남성합창단 중에는 연로한 정로님들이 참석하셨으니 노래의 중후함이 그날의 영광을 준 것이 아닌가도 생각한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이 큰 매현합창단이 예산지역에 있으니 예산의 문화활동은 그다지 결여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매현합창단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

“우애좋은 형제” 한마당

일노래競唱·傳統 農手工品 品評
土俗飲食 品評

燕亭國樂院도 招請



제 2회 지분촌 토속놀이가 11월 6일 대흥동헌 앞마당에서 어리기관장 및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졌다.

흥겨운 사물놀이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의좋은 형제 마당놀이 및 전통음식 품평회 일노래 경창 연정국악원 초청공연 등 다채롭게 펼쳐져 명실공히 대흥면의 자랑스런 전통 토속문화 축제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백제시대 열이 서린 임존성 하쪽에 펼쳐진 이 지분촌 토속놀이는 조상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문화유산들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뜻깊은 행사로서 잊혀져 가는 토속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해가기 위해 특히 선인들의 사랑방 문화인 농산·수공산품의 품평과 토속음식 품평은 새삼스런 감명을 주었다.

그리고 특별히 초청한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의 국악의 연주와 춤으로 이날의 지분촌축제가 더욱 축제분위기를 북돋아 주었다.



閔秀들의 詩書展

琢磨讀書會 第3回 發表



지난 11월 6일~7일까지 이틀간 문화원전시실에서 제 3회 탁마독서회 시화전이 열렸다.

1981년 창립되어 일꾼들의 연륜을 쌓은 이 탁마독서회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는바 계획된 책임새 있는 운영으로 그 청송이 더해가고 있다.

이번 시화전에는 액자뿐만 아니라 족자와 박공예 나 무인두공예 등의 다양한 양식으로 시화를 선보였다.

任東權教授講演 등 世明祭

세 명 학 우 회



뜻있는 프프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학생 일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고향인 예산을 떠나 언세대와 숙명대에 진학한 학생들로 조직된 세명회는 동향인간의 친목도모와 애향심고취, 나아가 고향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지난 8월 8일 반공회관에서 네번째의 세명제를 개최하였다. 문화원이 후원하는 이행사는 1부는 중앙대 임동원 교수의 「전통문화와 현대」라는 강연과 문화원장의 「학생과 애향운동」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2부는 숙명여대 탈춤반의 마당극 공연, 3부 만남의 시간을 통한 후배들과의 진학문제에 대한 대화등 매우 다채롭고

梅軒文化祭 盛了

윤봉길 의사 의거를 기념하는 제 14 회 매현 문화제가 4월 28일 예산농전과 충의사 일원에서 인파를 이룬 가운데 막이 올랐다.

농악놀이, 율놀이 등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서예 백일장, 글짓기대회, 사생대회 및 전국 장사 씨름대회가 처음으로 거행되기도 했으며, 야간에는 전야제의 흥을 돋구는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29일 당일에는 기념식과 윤봉길의사에 대한 강연, 그리고 민속춤, 널뛰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의 각종 민속놀이가 다채롭게 펼쳐져 다시 한번 윤의사의 애국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書藝白日場 마련

平統禮山地域協議會



평통 정백자문화회의 예산군 협의회에서는 4월 28일 매현 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예산농전 시청각실에서 서예 백일장을 열었다.

군내 초·중·고·일반부로 나누어 실시되어 서예인구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内浦制 復活競唱

第2回 自庵 金綵 先生 追慕時調大會

예산문화원에서 제 2 회 자암 김구선생 추모시조경창대회가 지난 10월 13일 2시 예산문화원 주최로 교장의 시조뿌리를 자암 김구선생으로 부터 찾고, 추모 서부지역 시조경창대회를 성대히 갖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노인부 1부 2부 경창을 벌였으며, 특히 시우회 중앙본부회장인 김 월하여사의 시창은 시우인들에 시조의 진수로 아로 삭이게 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예산시우회장 이 기봉씨는 다음 대회는 규모를 좀더 확대하여 전국 규모로 승격시키겠다고 다짐하였다.

특히 충남의 서부지역이 내포지역으로 이 지역의 특수한 전통인 내포제부를 신설하여 이날 대회는 내포제 경창은 시객들에게 감명을 주었으며, 앞으로 내포제 전통을 계승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할머니의 생신날

금오국민학교 5의3 박인오

지난 할머니의 생신날이었다.

서울에 사시는 작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오셨고 삼촌도 오고 사촌동생과 친척할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이방저방 사람들로 꽉차서 잔칫집 같았다.

할머니께서는 오늘따라 싱글병글 하시며 이방에 가셔서 "허허" 저방에 가셔서도 "허허" 하시며 입을 다물줄을 모르신다.

할머니께서 즐거워하시는걸 보니 우리들 마음도 무척 즐거웠다.

아침식사를 하고나서 동생과 나는 용돈을 모아 준비한 선물을 할머니께 드리며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했더니

"그래 우리 손주들이 최고구나."

하시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저녁때가 되어 친척들이 다 가시고 나자 동생이

"할머니는 언제가 제일 즐거우세요?"

하자

"할머니는 너희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할때가 제일 즐겁단다."

하시며

"그래 어제는 학교에서 어떤일이 있었니?"

하고 물으신다.

동생이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마치 동생의 친구처럼 이야기를 들으시며 즐거워 하신다.

나는 그런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할머니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우리 할머니께서 제일 즐거워 하시는것은 이야기하는것과 함께 노는것이라고 하신다.

할머니께서 말씀도 안하시고 기분이 안좋으신것 같은날은 동생과 나는

“ 할머니 옛날이야기 해주세요. ”

하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 앉으면 어느새 입가에 웃음을 띄우시며

“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

하시고는

“ 옛날에 호랑이 한마리가 있었는데 . . . ”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한참동안 계속된다.

이야기에 흥이나신 할머니는 이야기에 열을 올리신다.

그러면 동생과 나는 벌써 여러번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할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듣는다.

또 우리 할머니는 신경통이 있으셔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오는날엔 몹시 괴로워 하신다.

그러면 동생과 나는 할머니의 어깨를 한쪽씩 맡아 주물러 드리면

“ 아유 시원해라. ”

하시며 깊이패인 주름살위로 웃음이 번지신다.

동생은

“ 할머니 되면 다 이렇게 아픈가요? ”

“ 나는 할머니 안될래요. ”

하자

“ 너는 할아버지가 되지 할머니는 안될테니 걱정말아라. ”

하시 한바탕 웃었다.

나는 앞으로도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자주 찾아뵙고 또 제일 즐거워 하시는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려서 할머니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겠다고 다짐해본다.

우리 할아버지

신례원국민학교 6의4 박 안 수

하늘이 참 맑다.

이런 맑은 하늘을 보면 난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생각이 난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줄곧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대신 막내인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내가 뉘이 지난후, 이렇게 커다란 내모습도 보지 못하신채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할머니 뉘까지 사랑과 귀여움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국민학교 1학년쯤 되었을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도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나는 대문 앞에서 엄마도 불러보지 못한채 할아버지께 달려가

“ 할아버지, 사랑 좀 사주세요. 네 ? ”

하고 졸랐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돈이 없셨던지 조금 씩 목 소리로

“ 애구, 이 할애비를 팔아라. ”

말씀하시고는 꺾꺾 웃으셨다.

“ 잉, 할아버지 . . . ”

나는 금방이라도 떼를 쓰며 할아버지 팔에 매달려 우는 척 하곤 했었다.

이렇게 나에게 둘도 없는 할아버지께서 지난해에 중병에 걸리게 되셨다.

나는 몹시 걱정하며 정성껏 보살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침 산수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왔다갔다 하는 터여서, 나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도 제대로 하

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께서는 너무 아프셨던지 며칠 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다.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날 나는 내 어렸을 적 일이 생각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 때는 너무 어려서 할아버지께 속상하실 일만 지질렀고 이제 조금 컸구나 생각했는데 벌써 돌아가시다니 돌아가신 일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후 부터 난 할아버지라는 말을 불러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길을 가다가 우리 할아버지와 비슷한 할아버지가 지나 가시면 나는 얼른 뛰어가 앞에서 보곤 했다. 혹시 우리 할아버지가 아닐까해서.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으신지 한번도 나타나 주시질 않으셨다.

오늘도 운동장 한 구석에서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나는 우리 할아버지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러 보았다.

“ 할아버지. ”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께서는 울지 말고 어서 일어나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 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서 교실 쪽으로 걸어가며 생각을 하였다.

‘이제는 동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잘 보살펴 드려야지. 그리고 나중에 울며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도 지금 항상 기쁘게 해드려야지.’

오늘 따라 하늘은 더욱 높고 맑아 보였다.

할머니와 엄마

예산중앙국민학교 6의4 이대웅

우리 할머니는 67세이다. 젊으셨을 때에는 성품이 무척 까다로 우셨다고 한다. 엄마가 할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엄마한테 심한 시집살이를 시키셨다고 한다. 그때는 짐이 참 가난하여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하신다.

그러나, 할머니의 그런 시집살이 속에서도 국민학교밖에 나오시지 못한 엄마와 아빠는 할머니의 뜻을 받들며 아빠는 고물행상을, 엄마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행상을 겨울에는 풀빵장사를 시작하여 끈질기게 노력하여 지금은 별로 가난하지는 않다.

그런데, 지난 3월 갑자기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그때부터 엄마는 장사를 그만두고 할머니의 병 간호에만 매달리셨다. 하루도 장사를 쉴 수 없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나의 소풍한번 따라오지 못하던 엄마가 장사를 그만 두다니 . . .

추운 겨울 엄마께 이불도 못 덮고 자게 했다는 할머니를 밤을 세워 들봐 드리는 엄마가 참 이상했다. 그래서, 엄마께 여쭙어 보았다.

“엄마, 엄마는 시집살이 시킨 할머니가 귀찮지도 않아?”

“할머니가 귀찮다니, 넌 내가 지금 너에게 잘못하는 일이 있어 혼냈다고 이 다음에 내가 늙어 병들었을때 귀찮게 생각하겠니?”

하고 나무라셨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또, 아빠는 할머니를 고쳐보려고 침 놓는 의원 할아버지가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하니까 손에다 침 놓는 수지침을 배워 할머니께 놓아 드렸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처음보다 많이 좋아져 혼자 앉으실 수도 있다.

가을 운동회 날이었다. 할머니는 운동회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할머니가 학교에 오시는 것이 창피해서 안된다고 필적 뛰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할머니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원하시는 대로 해 드려야 한다고 나를 달랬다. 엄마의 뜻대로 나는 마지못해 일찍 학교에 가서 칠봉밀 그늘에 자리를 잡아 놓았다. 얼마후, 할머니는 아빠등에 얹혀 학교에 오셨다. 아줌마들과 선생님들까지도 할머니를 모셔다 놓은 우리 식구에게 찬사를 보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점점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 부채춤을 보시며 즐거워하실때는 나도 참 기뻐했다. 할머니를 모셔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는 할머니가 제일 즐거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들려 드리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가며 보았던 일, 선생님께 칭찬들은 일, 친구와 싸웠던 이야기까지도 빠짐없이 말씀드린다. 어느때는 손뼉을 치며 웃으시고 어느때는 혀를 차시며 안타까와도 하신다. 이런때는 내가 어른이고 할머니가 애기인 것 같다. 이렇게 즐거워 하시는 할머니를 보면 내 작은 노력이 할머니를 즐겁게 해 드리는구나. 생각되어 나도 즐거워진다.

나는 앞으로도 할머니가 살아가실때까지 더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이다.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께 잘 해드리는 것처럼 이 다음에 엄마에게도 잘 해 드릴것이다.

은희의 효행상

예산여자중학교 김 윤 정

“오늘따라 은희가 더욱 미워진다. 이 미워한다는 감정이 절투심이 아닐까? 은희는 거의 모든 방면에서 나보다 빼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다.”

이런 글들이 써 있는 5월의 일기.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은희에게 미안하다. 5월의 어느 날이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효행상을 수여하겠습니다.”

하는 교감 선생님의 말씀에 이어 각 반에 한 명 정도씩 호명을 했다. 이윽고 우리반 차례가 되었다.

나도 별로 특별히 효행상 받을 일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반 친구들도 모두 나와 비슷하러니 생각했기 때문인지 조금은 기대가 되었다. 그런데

“2학년 3반 정 은희”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괜히 은희에 대한 감정이 나빠졌다. 그래서 속으로만 무덤거리고 있었다. 언제나 무엇이든 나를 앞질러서 어느 때는 알뜰기도 했던 은희가 효행상까지 받게 되자 공연히 심통이 났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기장에 그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보니 우습고 반성 또한 되는 것이었다.

실은 며칠 전, 가정시간에 쓰는 준비물을 사기 위해 큰 길 수예점에 갔었다. 그런데 인사소리와 동시에 수예점 안에 들어선 나는 문득 놀랐다. 은희였다. 수예점 아줌마 옆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 아이가 은희였던 것이다. 은희는 나를 보더니 놀라는 듯하다가 금방 웃음을 띠며,

“어! 윤정이 아니니? 가정 준비물 사러 온 거야?”

라고 말했다. 내가 준비물을 살 때도 은희는 그 아줌마께 배우던 물건을 많이 넣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자꾸 그 물건에 눈이 갔다. 난 은희에게 물었다.

“저, 은희야! 그거 뭐하러 샀니?”

하고 말이다. 순간 은희는 약간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윤정아! 꼭 알고 싶다면 내 심정을 너에게 좀 털어 놓을께. 실은 이것 산것이 아니야.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수예점에서 재료를 가져다 만들어서 돈을 받는 거야."

"아니 왜?"

하는 나의 물음에 은희는 다시 대답했다.

"내가 6살, 동생이 3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 원래 부유하지 못했던 우리집 형편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니 아버지의 고생은 말도 아니었어. 그래서 결국 병을 일으켜서 나는 이 수예품 만드는 일, 동생은 신문 배달을 해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는 거야."

순간 나는 할 말을 잊고 말았다. 은희의 효행상을 못마땅하게 여긴 지난날이 후회스러웠다. 은희는 우는지 고개를 꼭 숙이고 있는데 난 바보같이 위로도 못해 주었다. 우린 그냥 그렇게, 그렇게 걸다가 헤어졌다. 집으로 오는 동안 내내, 은희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은희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나를 대했다.

은희의 효행상이 생각났다.

그제서야 왜 생각지도 않던 은희가 효행상을 받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다.

은희의 효행,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까지 말로만 효행, 효행 했지만 은희를 보고 효행이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았다.

어려운 가정형편 중에서도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며 곳곳이 살아가는 은희. 그런 은희를 존경한다. 정말 나라면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 곤궁에서도 햇님보다 달님보다 밝고 환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은희. 그런 은희를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도 환해지는 기분이다. 심 청이 보다 지극한 효성을 지닌 은희.

은희야! 그대, 바로 그거야! 쓰러져도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는 저 갈대처럼 살아가렴! 저 끊임없는 열, 그리고 빛을 내뿜는 태양처럼, 저 철새의 힘찬 나래짓만큼 힘차게 살아가렴!

어떤 할머니의 모습

예산중앙고등학교 2의2 박종국

찌는 듯한 무더운 여름도 벌써 그 힘을 다 했는지 밤마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향기로왔던 풀벌레들의 긴 울음 소리도 이제 그 연주가 끝나가는 듯 벌이 영글 조용한 가을밤을 위해 마지막 악보를 넘기느라 보다.

풀벌레들의 노래에 젖은 땀알들도 긴 연주에 상기된 불을 수줍은듯 숨이며 선선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이 여름을 보내면서 나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지난날이 있다.

1년전인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개나리와 하얀 목련꽃이 피고선 지고 화사한 빛꽃이 아름다운 4월이었다.

봄의 태양을 받으며, 유난히 밝아 보이는 아침 햇살과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온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새 학기를 맞아 참고서를 사기위해 친구와 함께 가는 중이었다. 흔들리는 버스에 몸을 기댄 채 콧노래를 흥얼 흥얼하는 사이 어느새 안내양의 상냥한 목소리가 온양임을 알려줬다.

버스에서 내린 뒤 서점을 찾아가는 도중 장사하는 차림을 한 쉼 할머니께서 "학생들 나 좀 보오"하고 우리들을 부르셨다. 얼른 가서 보니 그 할머니의 옆에는 포장이 너저분한 포장마차가 한대 서 있었다. "할머니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하고 내가 여쭙자 할머니께서는 그 포장마차를 가리키면서 "미안하지만, 이 수레를 좀 끌어 주겠소? 전에는 아들놈이 끌었는데..."

하시며 말문을 줄이고 안타까와 하셨다.

나는 바쁘지 않고 마침 가는 길이 가까워 잘 됐다 싶어 그 수레의 손

잡이를 잡았다. 친구들도 같이 뒤에 달려 붙었다. 그렇게 해서 한 5분쯤 지나 할머니께서 장사하신다는 골목길에 도착했다. 알고보니 그 할머니는 호떡을 파는 할머니였다. 그 곳에 도착하자 할머니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잡으시며 "정말 고마운 학생들이구먼. 정말 고마우이." 하시며 손을 만져 주시었다. 할머니의 여윈 손길이 손에 닿는 순간 따사로운 감촉이 나의 온몸을 감돌았다.

우리는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바로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오후쯤 되면 호떡을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 와서 먹고 가게" 하시었다. 우리는 할머니에게 오후에 올 것을 약속하고 서점을 찾아 나섰다. 서점에 들러 책을 구입한 다음에 우리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태양은 아침에 맞은 이슬을 다 떨쳐버리고 힘차게 타고 있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여 포장마차의 안으로 들어 갔을 때 할머니께서는 수건을 머리에 둘러 메시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호떡을 구워 내고 있었다. "할머니 저희들 왔어요" 하고 말하자 할머니께서는 "학생들이구먼. 이리와 앉아요. 학생들 주려고 호떡을 많이 구었으니" 하시며 그릇에 호떡을 담으셨다. 우리들은 그것을 꿀떡처럼 먹고 빈 그릇을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꽤 시장했던 모양이구먼. 아까는 고마웠어" 하시며 빈 그릇을 치우는데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청년 2명이 자리를 밀치며 들어왔다. 한 청년의 손에는 소주병이 쥐어져 있었다. 대낮부터 비를 비를 하는걸 보니 어디서 술을하고 온 것 같았다.

한 청년이 허 꼬부라지는 소리로 "할머니, 오뎡 국물에 술쯤 한 잔 합시다. 하며 우리를 밀어내며 자리에 앉는 것이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이 곳은 술파는 곳이 아니네. 그러니 판 데로 가 주게" 라고 하셨다. 그러자 소주병을 들고 있던 청년이 "술은 여기에 있으니, 잔하고 물쯤 주쇼. 누가 술 달라고 했소?" 하며 눈을 부릅 뜨고 대드는 것이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화를 내시며 그

들을 밀쳐내자 “아니, 이 할머니가 미쳤나?” 하며 한 청년이 대드는 것이었다. 또 한 청년은 소주병을 땅에 내팽개치고 의자를 밖으로 집어 던졌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우리들은 일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찾길 건너에 있는 경찰서로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다. 두 명의 경찰과 함께 그리로 온 순간 우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청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할머니만 홀로 땅바닥에 엎드려 신음하고 계셨다. 한 경찰관은 그 청년을 찾으러 저쪽 길편으로 뛰어 나갔고, 한 경찰관은 할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할머니의 땅이 가득 담긴 땅에 떨어진 호떡들, 깨진 컵들, 부서진 의자 이런것들로 봐도 우리는 경찰을 부르러 간 사이 그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했는지 짐작이 갔다. 해는 어느덧 그 모습을 감추고 거리엔 조용한 음악 소리가 들린다. 집에 가는 버스에 오르며 나는 생각했다.

옛날에 아름다웠던 우리들의 미덕과 경ros상은 다 어디로 갔는가?

달 밝은 밤이면 어린 손자를 무릎을 베풀어 삼아 눕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 주시던 할머니, 부엌이 울어대는 밤이면 호롱불 켜놓고 화롯불 앞에 손자들을 앉혀 놓고 긴 담배대를 뽑아 내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 주시던 할아버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을 자기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현대 사람들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양로원은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 . . .

노인을 공경하고, 웃어른을 정성으로 섬기고 있다면 지금처럼 양로원이 생길 이유가 없다.

노인들의 소원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키워준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아가며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키워준 부모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文化有感

- ◇ 요 數三年 동안은 고장의 文化行政에는 不毛地的인 霧圍氣였던 現實?
- 文化暢達이란 國政에 逆行되거나 않았던 施政이나 아니었던가?
- ◇ 이러한 고장에서 禮山郡誌가 世上에 그 얼굴을 내 놓았다.
그동안 없던 恨을 풀고 郷土史가 나왔음은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郡誌가 踞之狗吠堯의 誌 인상 싫다는 소리가 높다.
- ◇ 한글의 史誌라면 時代를 가려 보여주는데 基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
- ◇ 또한 남의 이름을 參與한 것처럼 한 그 低意는?
- ◇ 골의 벼슬아치가 되었다고 해서 百姓의 血稅은 다스리는데 慎重을 제쳐놓은 文化行政은 오히려 盛政이 되거나 않았나 하는 衆評...
- ◇ 이에 知와 識이 아리송할 경우는 宗용이 誠과 뜻을 보였더라면 刻鵠不成尙類鶩나 될것.....하고. 고장 사람이기에 아쉬워 해 본다.

(竹堂記)

編輯後記

- ◇ 戊辰의 새 햇살이 밝았다.
民主政治 發展에도 밝아진 해 이기도 하다.
이 希望 찬 새 아침에 歲拜 드린다.
- ◇ 이 한해는 文化政治에서 發展된 文化政策에 依한 行政에도 간절한 祈望을 갖어 보기로 한다.
- ◇ 이번 號는 自庵先生을 再照明하고, 龍溪 九晚先生 兄弟를 發掘해 보는 特輯으로 집어 보았다.
- ◇ 또한 純粹한 民族資本에 依한 韓末前後한 內浦地域의 開化의 表象인 湖西銀行을 再次 밝히 보고 本店建物を 保存할 것을 다시 強調한다.
- ◇ 이 所重한 文化財이자 우리나라 銀行史의 里程表的인 山歷史 建物を 保存하는데 行政力을 기우려 주기를 또 다시 두손모아 본다.

(李 恒 馥)

季 刊

禮 山 文 化 院 報

1988年1月1日發行
1月號(通券10輯)

發行人兼
編輯人 李 恒 龍

發行處
忠南禮山郡禮山邑禮山里
禮山文化院
電話 2-2441

印刷處 光明印刷公社
(禮山) 2-4102 代表. 申奉周

非 賣 品

